

HD현대

2024 여름호



K-방산의 선두주자 HD현대

1980년 최초의 호위함 '울산함'부터
2019년 필리핀 해군 현대화의 상징 '호세 리잘함'
2022년 현존 최강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까지
HD현대는 K-방산 최전선에 서있었습니다.

이제 HD현대가 건조하는 4척의 함정이
페루 바다를 수호하게 되었습니다.
페루 해군의 현대화 사업, HD현대가 함께합니다.



Contents

2024 SUMMER



06

HD 하이라이트



20

현장을 가다



26

오피스 인터뷰



32

미라클 HD



38

우리네 이웃



52

로컬 재발견

FOCUS

04 프롤로그

기업문화

06 HD 하이라이트

HD현대 기업문화 들여다보기

HD INSIDE

10 HD 돋보기

함정 명가, HD현대중공업
수소지게차 첫 공급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관왕
지속가능항공유 개발
HD현대오일뱅크 창립 60주년
그룹사 소식

18 미래를 여는 HD

암모니아 추진선
HD현대상호 '삼파고(Sampago)'

20 현장을 가다

HD현대미포 선박커미셔닝부
선거운항과 선거팀
HD현대중공업 IMI사우디현장

26 오피스 인터뷰

HD현대오일뱅크 국제금융팀

28 스타(★) 플레이어

Talk with 신입사원
첫 글로벌 기술 강사 '라지 수단'
HD현대마린솔루션 남매 직원

32 미라클 HD

HD현대 MZ봉사단 발족

34 사랑을 나누시다

울산 통구 정윤지 씨

36 HD SNS 픽

햇하거나, 새롭거나

38 우리네 이웃

HD현대 × 서부초등학교 합창단
울산 HD FC, 군함 접목 포토카드 출시
현대예술관

REFRESH

43 인사이드

트렌드 따라잡기 - 돌봄경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건강 칼럼 - 열대야
마음 컨설팅 - 용서 심리학

50 로컬 재발견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 잡월드'
여행 칼럼 - 서산에서 꽃지까지

56 HD 툰(TOON)

눈 떠보니 신입사원 Ep.0

58 사우 참여마당

“기업문화가 답이다!” 조직과 직원들의 성장을 위한 첫걸음

기업문화는 조직의 성공과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강력한 기업문화는 직원의 몰입도와 생산성을 높이고, 인재 유치와 유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기업문화의 진화와 혁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조직의 성장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보다 풍부한 경험과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

다양성과 세대 간 협력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은 현대 기업문화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기업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직원들이 공정하게 대우 받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시각과 아이디어가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특히 직장에서는 세대 간 소통과 협력을 배놓고 생각할 수 없다. 직장에는 베이비붐 세대부터 Z세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며, 이들 간의 효과적인 소통과 협력은 기업문화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세대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모든 직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멘토링 프로그램, 세대 간 워크숍,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활용해 직원들 간 소통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직장인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 건강

직장 내 스트레스는 직원의 생산성과 직결되며, 정신 건강은 더 이상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다. 기업들은 직원의 전반적인 웰빙(Well-being)을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성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신 건강 지원,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건강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유연한 근무제도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이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업무를 하는 공간에도 변화가 생겼다. 특히 COVID-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격 근무와 유연 근무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됐다. 많은 기업들이 원격 근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는 등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글로벌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더욱이, 협업 도구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물리적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우리가 다니고 싶은 회사

요즘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회사는 단순히 높은 연봉을 제공하는 곳만은 아니다. 투명한 경영, 평등한 기회, 직업적 성장 가능

성, 긍정적이고 지원적인 업무 환경 등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직장 내에서의 존중과 신뢰,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문화는 직장인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문화는 직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들은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기여가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처럼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문화는 직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진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직장 만족도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변화하는 기업 문화의 미래

전 세계적인 기업문화 트렌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전략적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세대 간 소통, 직장인 스트레스 관리, 업무 공간 및 형태의 변화 등 다양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에 맞춰 기업들은 보다 유연하고, 포용적이며, 직원 중심적인 문화를 구축함으로써 미래의 도전에 대비하고 있다.

기업문화의 진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HD현대 역시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이어집니다.>

우수 기업문화 사례 살펴보기

“성공하는 기업엔 []한 기업문화가 있다!”

구글 창의성과 자율성

구글은 창의성과 자율성을 기업문화의 중심에 둔다.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시간의 20%를 개인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이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프로젝트의 원천이 된다. 또한, 수평적인 조직 구조를 통해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협업을 촉진해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넷플릭스 고(高)성과 문화

넷플릭스는 '자유와 책임'이라는 슬로건 아래 고성 문화를 조성했다. 직원들이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며, 엄격한 성과 평가와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한다. 자유로운 휴가 정책과 유연 근무제를 통해 직원들이 자신의 일과 삶을 균형 있게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SAS 직원 복지와 지원

SAS는 직원 복지와 지원을 최우선으로 한다. 포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유연한 근무 시간, 자녀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해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만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해, 높은 생산성과 낮은 이직률을 유지하고 있다.

링크드인 연속적인 학습과 성장

링크드인은 연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중시한다. 직원들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학습 자원을 제공한다. 'Mentorship(멘토십) 프로그램'과 경력 개발 기회를 통해 직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우스웨스트 항공 직원 우선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직원 우선' 철학을 바탕으로 한 기업문화로 유명하다. 직원들이 만족하고 행복해야 고객 서비스가 향상된다고 믿으며, 이를 위해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는 'HD현대인'입니다!

2022년 12월, HD현대의 새로운 핵심가치가 선포됐다.

세상을 이끄는 혁신, 두려움 없는 도전, 서로에 대한 존중, 모두를 위한 안전.

더욱 강력한 HD현대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었고, 2년 간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세상을 이끄는
혁신



두려움 없는
도전



서로에 대한
존중



모두를 위한
안전



HD현대, 새로운 50년을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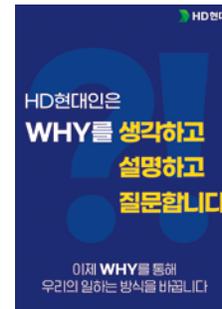
HD현대는 1972년 창립 이래 사업보국 정신을 근간으로 지난 50년간 국가 기간산업의 리더로 성장했으며 점차 조선, 에너지, 산업솔루션 등으로 사업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 심화와 탈탄소화 의무 강화, 디지털화의 가속 등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새로운 위기와 기회가 대두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과 함께 사업 구조와 인력 구성에 큰 변화를 겪고 있다.



HD현대는 새로운 50년, 100년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 모든 구성원들을 하나의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새로운 가치체계를 수립했다.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기존의 현대정신을 계승한 새로운 가치체계는 HD현대의 명확한 미래 성장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혁신과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개방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상호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구축하여, 세대와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유능한 인재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를 만들고자 하고자 하는 것이다.

새로운 가치체계 내재화를 위한 여러 변화관리 활동들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하는 방식의 개선과 도전하는 문화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Top Team Workshop'에서는 그룹의 모든 최고경영층이 모여 일하는 방식의 개선과 도전하는 문화 구축을 위해 최고경영진으로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HD현대 정기선 부회장은 "기업문화라는 것이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것인만큼, 그룹의 모든 최고경영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기업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라고 말하며, 기업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HD현대는 이를 시작으로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위한 'WHY Campaign', CA(Change Agent) 주도의 변화관리 활동 강화, 핵심가치 역량진단 고도화를 위한 교육 과정 진행 등 임직원들의 핵심가치 내재화를 위한 크고 작은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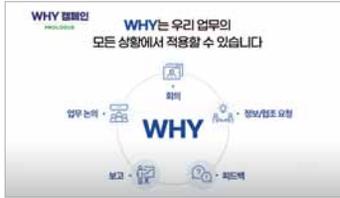
Think, Explain, Ask! 'WHY 캠페인'



HD현대는 2024년 4월부터 그룹 차원에서 'WHY 캠페인'을 진행하며, '혁신, 도전, 존중, 안전'이라는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일하는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 캠페인은 'Think WHY', 'Explain WHY', 'Ask WHY'를 핵심 메시지로 하여, 업무의 목적과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고 설명하며, 모르는 점에 대해서는 주저 없이 질문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캠페인의 목표는 임직원들이 중요한 것에 집중해 효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일하며,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는 업무 방식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HD현대는 △업무는의, △회의/보고 등 실제 업무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상과 가이드를 SNS와 사내 메일을 통해 배포하고 있다. HD현대건설기계의 한 팀장은 “그동안 팀장으로서 제 업무지시가 좀 일방적이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됐고, 팀원들에게 업무의 목적과 배경을 더 잘 설명해 주기 위해 애쓰고 있고, 잘 이해했는지도 꼭 물어보고



있다”며, “팀원들도 예전보다는 좀더 자유롭게 의견을 내는 것 같기도 한데 서로 계속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WHY캠페인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WHY 캠페인은 임직원들이 현업에서 WHY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는 참여형 이벤트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HD현대는 임직원 모두가 업무 현장에서 WHY를 “생각”하고 “설명”하고 “질문”하며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 갈 예정이다.

HD현대 정기선 부회장은 그룹의 모든 리더들에게 직접 메일을 발송해, 모든 구성원이 효율적이고 주도적으로, 그리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WHY의 실천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정기선 부회장은 “WHY 캠페인은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회사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D현대는 이번 WHY 캠페인을 통해 모든 임직원이 새로운 방식으로 더 나은 성과를 이루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기업문화 개선 활동, CA가 함께합니다!

HD현대는 2022년부터 각 계열사에서 Change Agent(CA)를 선발해 기업문화 변화 관리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CA는 각 조직의 기업문화 개선 활동에 앞장서는 직원들로 구성됐으며, 올해는 CA의 역할과 육성 방식을 포함한 그룹 표준 가이드를 제공해 전 그룹사가 CA 주도로 기업문화 개선 활동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4월에는 그룹의 모든 CA를 대상으로 HCLA(HD Hyundai Culture Leader Academy) 과정을 실시했다. 해당 교육을 통해 모든 CA는 CA 역할을 이해하고,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스킬을 학습하는 등 변화관리자로서의 기본 역량을 강화했다. 2025년부터 이 교육은 신입 CA들의 필수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에 참여한 CA들은 “처음 해보는 CA 활동이라 어렵지만, 우리 조직의 변화를 이끄는 데 기여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람도 느끼고, 스스로도 성장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된다”고 말하며, CA 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HD현대는 CA 활동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CA 활동을 지원하는 ‘CA 스폰서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각 조직의 기업문화 개선을 이끌어 나가는 임직원들이 ‘CA Sponsor’로 활동하고 있는데, 스폰서로 선정된 중역들은 CA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며, 조직 내 필요한 변화 활동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CA들의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CA 스폰서로 활동 중인 한 임원은 “CA 스폰서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생생하게 알게 됐다”며, “평소 혼자 고민했던 변화 활동에 대해 CA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실천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게 됐다”고 이야기했다. CA 스폰서 제도는 CA 주도의 기업문화 개선 활동에 더욱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HD현대는 CA 제도를 통해 모든 계열사에서 혁신적인 기업문화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며, CA와 CA 스폰서 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질 변화가 HD현대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핵심가치와 함께하는 역량 진단



HD현대는 전 구성원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핵심가치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구성원들이 핵심가치를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지를 점검하고, 더 나아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파악하는 ‘핵심가치 역량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HD현대 4개의 핵심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11개의 역량 항목(△창의적 사고, △근

성 있는 추진, △공감적 소통 등)을 정의했다. 역량 항목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 지표를 임원-직책자-비책자 별로 설정해 임직원들이 이해하기 쉬운 역량진단을 마련했다. 역량진단을 통해 구성원들은 핵심가치 실천 수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HD현대 HR실장은 “역량 진단의 핵심은, 내가 뭘 잘 하는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갈 것인지에 대해 구성원과 리더가 1:1로 만나서 함께 논의하는 피드백 미팅”이라며 “이러한 시간이 쌓일 때 우리는 더욱 강력한 HD현대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역량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HD현대 4개의 핵심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11개의 역량 항목(△창의적 사고, △근성 있는 추진, △공감적 소통 등)을 정의했다. 역량 항목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 지표를 임원-직책자-비책자 별로 설정해 임직원들이 이해하기 쉬운 역량진단을 마련했다. 역량진단을 통해 구성원들은 핵심가치 실천 수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HD현대 HR실장은 “역량 진단의 핵심은, 내가 뭘 잘 하는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갈 것인지에 대해 구성원과 리더가 1:1로 만나서 함께 논의하는 피드백 미팅”이라며 “이러한 시간이 쌓일 때 우리는 더욱 강력한 HD현대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역량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HD현대 4개의 핵심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11개의 역량 항목(△창의적 사고, △근성 있는 추진, △공감적 소통 등)을 정의했다. 역량 항목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 지표를 임원-직책자-비책자 별로 설정해 임직원들이 이해하기 쉬운 역량진단을 마련했다. 역량진단을 통해 구성원들은 핵심가치 실천 수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HD현대 HR실장은 “역량 진단의 핵심은, 내가 뭘 잘 하는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갈 것인지에 대해 구성원과 리더가 1:1로 만나서 함께 논의하는 피드백 미팅”이라며 “이러한 시간이 쌓일 때 우리는 더욱 강력한 HD현대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역량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함정 명가(名家)' 글로벌 시장 정조준

HD현대중공업이 세계를 무대로 중흥무진하며 함정 수출 시장 공략에 나섰다. '2030년 중반 연 매출 5조원'이라는 방산 비전 청사진을 공개하는 한편, 함정 MRO 사업 분야 우수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시장 선점을 위한 초석을 쌓고 있다.



K-함정 비전 및 연구개발 역량 설명회

HD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28일(화) 서울에서 'K-함정 비전 및 연구개발 역량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주원호 특수선 사업대표가 'K-방산비전 2030'을 공개했다.

지금까지 국내사업 중심에 연 매출 1조원 내외로 유지해온 함정 사업을 2030년을 기점으로 해외수출에 주력하는 연 3조원 매출 구조로 바꾸고, 나아가 2030년 중반에는 연 매출 5조원 규모의 '함정방산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세계 함정방산 시장은 향후 10년간 820억불(1천100억척) 규모로 성장이 예측되며, MRO 사업은 30년간 연 평균 약 70억 불 규모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그동안 기업 주도형 함정 연구개발 사업으로 축적한 엔지니어링 역량을 기반으로 MRO 분야 및 함정시장의 성장 플랜을 세웠다.

HD현대중공업은 목표 달성을 위해 권역별 해외거점을 구축한다. 일명 '환태평양 벨트다'.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필리핀과 페루뿐만 아니라 호주·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외연을 넓힌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7천톤급 이상의 이지스 구축함을 자체 설계 및 건조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해외 거점별 파트너십 체결 △현지건조 체계 구축 △기술이전 패키지 표준화 등을 추진해 '환태평양 벨트화' 비전을 구현할 예정이다.

또,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 및 연구 엔지니어 중심의 인력과 조직을 추가로 확충하고, 해외사업 및 잠수함 조직을 전문화하며 국내·외 생산기반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 환태평양 벨트화

함정 건조 → 엔지니어링·서비스 사업으로 확장

HD현대중공업은 지난 6월 11일(화) 인재교육원에서 미국선급협회(ABS)·선진엔텍·비엔에프테크놀로지·하이에어코리아·서비스·세스코 등 9곳과 '국내·외 함정 MRO(Maintenance Repair&Overhaul, 유지·보수·정비) 사업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HD현대중공업은 현재 건조 중심의 함정 사업을 엔지니어링·서비스 사업으로 확장해 수주 경쟁력을 강화한다.

특히, 부품 공급, 정비 지원 등의 MRO 사업 영역을 정비시설 현대화 및 플로팅도크 건조 등 정비 인프라 구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함정 MRO 사업 추진 계획

사업모델 다각화

• 건조 중심 → 엔지니어링/서비스 사업 확장

수주 경쟁력 강화

• 인도 후 수명주기 관리로 신뢰도 제고 및 재발주 기대

주요 서비스 범위

- 부품 공급
- 정비 지원
- 정비 인프라 구축 (정비시설 현대화, 플로팅도크 건조)

이와 함께 HD현대중공업은 미국선급협회(ABS)와의 검사·인증 협력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미 해군 함정 MRO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필리핀 초계함 1번함 진수·2번함 기공 '착착'

HD현대중공업이 필리핀 초계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하며, 해외 함정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는 지난 6월 18일(화) 7도크에서 3천200톤급 필리핀 초계함 1번함의 진수식을 가졌다.

필리핀 초계함은 길이 118.4, 폭 14.9m, 순항속도 15노트(약 28km/h), 항속 거리 4천500해리(8천330km)에 이르는 최신에 함정으로, 대함(對艦)미사일과 수직발사대를 비롯한 첨단 무기체계가 탑재된다.

이 행사에는 HD현대중공업 이상균 사장, 필리핀 길베르토 테오도로 국방부 장관, 로미오 브라우너 합참의장, 토리비오 아다시 해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했다. 테오도로 장관의 부인 모니카 프리에토 테오도로 여사가 대모(代母)의 역할을 수행한 가운데, 이 함정은 필리핀 독립운동가인 '미겔 말바르'를 기려 미겔 말바르함으로 명명됐다.

초계함 1번함은 시운전과 마무리 의장 등을 거쳐 내년 필리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또, 지난 6월 14일(금) 기공식을 가진 2번함도 올해 진수를 거쳐 2025년까지 인도된다.

한편, 앞서 HD현대중공업은 필리핀 정부로부터 호위함 2척, 초계함 2척, 원해경비함(OPV) 6척 등 총 10척의 함정을 발주 받았다. 또, 2020년과 2021년에 인도한 필리핀 호위함 2척의 유지보수 사업(MRO)도 수주하며, 우수한 함정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필리핀 해군 현대화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게차로 수소 시대 선도! 5분 충전하면 최대 5시간 가동 성능

HD현대사이트솔루션이
중대형 수소지게차를 물류 현장에 처음 공급하며
친환경 기술력을 입증했다.



국내 수소지게차 중 최대 규모

HD현대사이트솔루션이 5톤급 수소지게차 4대를 건설기계부품연구원에 공급했다. 기존 국내 시장에는 3톤급 제품만 공급됐기에 국내 수소지게차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제품이다. 이 장비는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 고려야연 온산제련소에 배치해 7월부터 수소지게차 부품의 내구도·안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로 현장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에서 개발한 5톤급 수소지게차는 국내 타 제조사의 제품 대비 적재능력이 1.7배 이상 높아 항만, 물류센터 등 고중량의 물품을 운반해야 하는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5톤급 수소지게차에 탑재된 50kW급 수소연료전지 파워팩은 5분만에 완충이 가능하고 5시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다. 충전에 4~6시간이 소요되는 전기배터리식 지게차에 비해 효율적이고, 영하 30°C에서 영상 60°C에 이르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구동이 가능하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지난 2022년 현대자동차그룹과 공동으로 5톤급 수소지게차 모델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으며, 2027년 정식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1.8톤, 3.5톤 수소지게차 등 중소형 라인업 또한 확대하고 있으며, 일부 모델은 실증까지 마쳤다. 고체수소 저장장치를 탑재해 운행 시간을 늘리는 등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수소에너지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그레이수소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생산 과정에서 상당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블루수소

화석연료를 사용하지만 탄소포집기술로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생산한 수소



그린수소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기를 이용해 수전해 방식으로 생산한 친환경 수소

이 외에도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해 수전해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핑크수소'와 땅속에서 채굴해서 얻은 천연수소 '화이트수소'가 있어요!

디자인 콘셉트 부문에서 최우수상, 본상

HD현대사이트솔루션의 미래형 건설기계 콘셉트 '퓨처엑스(FUTURE-X)'가 2024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디자인 콘셉트 부문 '최우수상(Best of the Best Award)'에 선정됐다. 아비쿠스(Avikus)의 '뉴보트(NeuBoat)'도 같은 부문에서 '본상(Winner)'을 수상하며 HD현대의 위상을 드높였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 미국의 'IDEA'와 함께 글로벌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제품의 미적 가치를 넘어 그룹의 미래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인정받은 성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디자인을 실제 제품까지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도 힘을 예정이다.

차세대 무인 자율 건설기계 '퓨처엑스(FUTURE-X)'

'퓨처엑스(FUTURE-X)'는 올해 1월 HD현대 CES에서 밝힌 육상 혁신 비전 '사이트 트랜스포메이션(Xite Transformation)'을 구현하기 위한 디자인 콘셉트로, 건설 현장의 △안전성 △생산성 △지속가능성 등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무인 자율 건설기계를 모티브로 디자인을 적용했다.

무인 장비 콘셉트에 맞춰 운전석이 없는 '캐빈리스(cabin-less)' 형태로 디자인됐으며, 하부체를 공용화함으로써 사용자 환경에 따라 장비를 굴착기-휠로더-굴절식 덤프트럭(ADT)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4족 크롤러와 적응형 트랙 시스템을 적용해 험지에서도 원



퓨처엑스(FUTURE-X)

육·해상 무인화 이끈다! 무인 건설기계&자율운항 솔루션, 디자인상 수상

HD현대가 2024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2관왕을 달성하며 육·해상을 넘나드는 최첨단 무인화 솔루션 분야에서 기술력뿐 아니라, 우수한 디자인으로도 경쟁력을 입증했다.

활한 자율 이동 작업이 가능하며, 레이더와 카메라, 어라운드 뷰 모니터(AVM) 등을 탑재해 무인 작업의 안전성을 크게 높였다.

퓨처엑스는 최우수상 선정과 동시에 오는 10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한 해 최고의 디자인 제품에 수여하는 '루미너리(Luminary)'상 후보에도 이름을 올리게 됐다.

레저 보트용 자율운항 시스템 '뉴보트(NeuBoat)'

아비쿠스의 레저 보트용 자율운항 시스템인 '뉴보트(Neu-Boat)'도 운전자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철학을 통해 처음으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다. '뉴보트'는 자율운항 보트의 운항과 정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시스템을 비롯해, 편의성과 직관성을 모두 높인 독자적인 인터페이스 등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뉴보트(NeuBoat)

국내 최초로 일본에 수출! 차세대 친환경 연료, 지속가능항공유(SAF)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 6월 국내 최초로 지속가능항공유(SAF, Sustainable Aviation Fuel)를 일본에 수출하며 우수한 정유기술을 세계에 알렸다.



탈탄소 추세에 맞춘 지속가능항공유 개발

항공기의 연료로 사용되는 항공유는 원유를 투입해 생산하는 전통적인 제품이다. 보일러 기름으로 사용되는 등유와 비슷하며 성분도 거의 같다. 또한 항공유는 고도 변화에 따라 기온과 압력이 변하는 점을 고려해 엄격한 규격을 가지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가 지속가능항공유 개발을 시작한 배경은 UN 산하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주도의 항공유 추세 때문이다. 2020년부터 국제항공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UN이 선언했고,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도 지속가능항공유에 대한 인센티브 혜택들이 생겨났다. 항공사들의 모임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도 2021년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0% 감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일본, EU 역시 지속가능한 항공유 정책을 밝히며 전 세계적인 규제 바람이 불고 있다.

지속가능항공유 시장의 선구자 HD현대오일뱅크

국내에서 지속가능항공유를 생산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기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는 HD현대오일뱅크와 같은 정유회사는 원유에서만 항공유 같은 석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었으나, 2024년 초 개정안이 통과되며 폐식용유 등 정제원료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HD현대오일뱅크는 고민 끝에 폐식용유 등의 바이오 기반 원료를 기존 공정에 투입하는 코프로세싱 방식의 생산법을 선택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폐기물 기반 원료를 공리했고, 그 중 원료 수급이 가능한 폐식용유를 활용하게 된 것이다.

생산 방식 역시 효율성과 경제성을 극대화했다. 지속가능항공유 전용 설비 구축에는 막대한 투자 금액이 들 수밖에 없다. 이에 원료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정유 공정을 활용하게 됐다. 폐식용유에 있는 산소(O)를 없애는데 수소(H)를 넣어 물로 탈락시키는 방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수소첨가공정(MHC) 공정에서 생산하기로 한 것이다.

지속가능항공유 시장의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품질 인증을 완료한 상황인데, 현재의 코프로세싱 방식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동향을 계속 관찰, 수소 첨가 설비를 지속가능항공유 전용 설비로 전환해 가는 방식까지 고려하고 있다. 그 안에서 운용비를 최소화하고, 제작 비용을 최적화해 지속가능항공유 시장의 움직임에 기민하게 대응해 갈 계획이다.

▼ 지속가능항공유를 생산하는 MHC 공정



함께 만든 60년의 성장

창립기념식은 개회 선언과 국민의례로 시작했으며, 장기근속자와 우수거래처에 대한 포상으로 이어졌다. 장기근속 포상자는 35년 20명, 30년 45명, 25년 4명, 20년 23명, 15년 160명, 10년 85명으로 총 337명이었다. 이후 우수거래처 시상식을 진행했는데, Partnership-Vendor, Partnership-Channel, 안전관리, 사회공헌, 4가지 분야로 구분해 HD현대오일뱅크와 협력해 성장에 일조한 거래처 중 9개 회사에 수여했다. Partnership-Vendor 분야에는 현대그린푸드, KMC해운, 태산로테이티브먼트, 스프레이시스템이, Partnership-Channel 분야에는 금강석유, 신성산업이, 안전관리 부문에는 미동이엔씨, 한남테크노이, 사회공헌 분야에는 성신STA가 수상했다.

주요인 대표이사는 창립기념사를 통해 " 그동안 HD현대오일뱅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임직원과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경쟁사가 경험하지 못했던 역사의 고난을 슬기롭게 헤쳐오면서 130만명, 하루 69만배럴 규모의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에너지 전환, 어려운 시장 지표 등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치 않다"며 "회사의 흥망을 가르는 변곡점 위에서 '우리다움을 잃지 않으면서 변화를 선도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자"는 당부의 메시지도 전했다. 마지막으로 사가 제창, 기념촬영 순으로 1부 행사를 마무리했다.

앞으로의 60년을 기약하며

이어진 2부 행사, 케이크 커팅식을 마치고 장기근속 및 우수거래

"우리 다음과 변화 모두 잡겠습니다!" 창립 60주년 맞은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오일뱅크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충남 대산 공장 본사에서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처 수상자와 임원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다과를 들며 담소를 나눴다. 미처 못다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수상의 기쁨 및 60주년의 의미 등을 공유했다. 사회공헌에 기여한 성신STA 운중을 대표는 영광스럽게 상도 받고 건배사도 하게 됐으며, HD현대오일뱅크 창립 60주년을 축하하는 건배구호 '소나무(소중한 나눔으로 무한한 행복과 희망을)'를 외쳤다. 30년 장기 근속자 신동식 전문과장은 "초중고 12년 개근상 이후 오늘 회사에서 30년 개근상을 받았는데 감회가 새롭다"며, "남은 시간 회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HD현대오일뱅크 60주년 창립기념식은 서로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의 60년을 기약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 HD현대 |
호국보훈의 달 맞아
위국헌신 정신 기려



HD현대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영천호국원에서 묘역정화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5월 24일(금)과 6월 14일(금) 양일에 걸친 묘역정화 봉사에는 임직원 총 14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순국열사에 대한 헌화 및 참배를 시작으로 묘역 주변 잡초제거와 꽃 심기, 비석 닦기, 태극기 정비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HD현대는 호국영령과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5년 국립현충원과 맺은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매년 정기적인 묘역정화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또, HD현대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임직원 기부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에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부 키오스크를 운영, 6월 한 달 동안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후손을 대상으로 한 모금활동을 진행했다.

| HD현대미포 |
소구경 파이프
티그(TIG) 자동용접 장비 시연회



HD현대미포가 생산현장에 적용할 자동화 장비 개발을 통해 품질 및 생산성 제고에 힘을 쏟고 있다.

HD현대미포는 지난 6월 12일(수) 건조 중인 5만톤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Product/Chemical Tanker)에서 소구경 파이프 티그(TIG) 자동용접 장비 시연회를 가졌다.

김형관 사장과 유관부서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시연회에서 선보인 '오비탈(Orbital/궤도) 용접 장비'는 지름 100mm 이하의 소구경 파이프에 설치해 궤도를 따라 회전하며 자동으로 용접하는 기술이 적용됐다.

특히 이 장비는 용접 전류 및 회전 속도 등 다양한 조건을 구간별로 설정해 보다 미세한 용접을 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저장기능도 갖춰 경험이 적은 용접사들의 고품질 용접에 효과적이다.

| HD현대상호 |
2024 안전 사진·영상 공모전 성황



HD현대상호가 직원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안전문화를 조성하고자 개최한 '2024년 안전 사진·영상 공모전'에 총 744개의 작품이 접수됐다. HD현대상호는 많은 직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Work상 3명, Home상 2명, Yes상 3명, 인기상 1명, 특별상 3명, 참가상 100명 등 총 112명에게 갤럭시워치6, 쿼츠레늄이아 패밀리스 4인 왕복권, 닌텐도 스위치, 뉴발란스 996, 삼성트리오 무선 충전기, 스탠리 텀블러, 기프트콘 등의 푸짐한 상품을 내걸었다.

3차에 걸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 지난 6월 13일(목) 시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규모만큼이나 상명(賞名)이 인상적이었는데, 그룹에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WHY캠페인'의 W를 딴 Work상, H를 딴 Home상, Y를 딴 Yes상이 그것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지난 6월 16일(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리는 '울산 HD FC vs FC 서울' 홈경기에서 '2024 시즌 브랜드데이'를 실시했다.

올해는 본사 및 협력회사 직원과 가족 등 900여명을 초청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볼거리와 이벤트를 마련했다.

경기 관람을 위해 구장을 찾은 팬들에게는 △조현우 선수 친필 장갑 △선수단 친필 사인볼 △HD현대일렉트릭 해상풍력 블록 △캐릭터 키링 등의 경품을 증정했다. 또한 축구 경기의 백미인 에스코트 키즈로 임직원 자녀 22명이 참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조석 사장은 "이번 브랜드데이는 임직원과 협력회사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울산 HD를 응원하는 팬들을 비롯한 울산 시민에게 HD현대일렉트릭이 더욱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 HD현대일렉트릭 |
울산 HD와
'2024 시즌 브랜드데이'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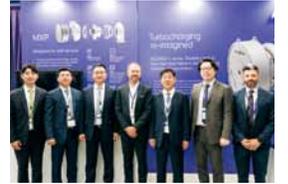


HD현대마린솔루션은 세계 최대 선박 엔진용 터보차저 공급회사인 액셀러론(Acceleron)과 함께 지난 6월 5일(수) 그리스 최대 해운 전시회인 포시도니아(Posidonia)에서 엔진 부분 부하 연비 최적화(EPLO: Engine Part Load Optimization) 개조 관련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EPLO'는 선박의 속도와 운항 빈도가 많은 엔진 출력 범위에 맞춰 터보차저 성능을 최적화하고, 연료 분사량 및 분사 시기, 연료-공기 혼합비 등을 조절해 연비 효율을 높이는 친환경 솔루션이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액셀러론과 함께 2021년 EPLO 서비스를 출범했으며, 노르웨이의 세계적인 자동차 해상 운송 그룹인 Wallenius Wilhelmsen Ocean AS 사와 자동차 운반선 8척을 대상으로 EPLO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했다.

| HD현대마린솔루션 |
액셀러론과 EPLO 사업 협력
MOU 체결



HD현대에너지솔루션 박종환 대표가 지난 6월 25일(화)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제 6대 신임 회장으로 임명됐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을 필두로 17개 임원사와 76개 회원사로 구성된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태양광 업계를 대표해 국가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종환 대표는 태양광 업계의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신임 회장직을 맡게 됐다. 그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내 태양광 산업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회 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박종환 대표의 협회장 취임으로 한국 태양광 산업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HD현대에너지솔루션 |
박종환 대표,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신임 회장



친환경 선박 시장이 주목하다! ‘탄소제로’ 암모니아 추진선

기술의 발전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혁신적인 제품들을 꾸준히 탄생시키고 있다.

조선 업계에서는 암모니아 연료를 활용한 암모니아 추진선이 넷제로(Net-zero) 시대의 떠오르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차세대 에너지 왕좌를 넘보는 ‘암모니아’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이 차세대 친환경 선박으로 각광 받는 암모니아추진선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신기술을 발표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 5월 31일 (금)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 세계 조선-해양 관계자 1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국제테크포럼’을 열고, 암모니아 연료의 독성가스 배출량을 제로(zero) 수준으로 줄이는 친환경 신기술을 선보였다.

이번에 선보인 암모니아 발전용 엔진(H22CDF-LA)은 1.4~2.2MW 급으로, 암모니아뿐만 아니라 일반

연료유(Fuel oil)와 바이오(Bio) 연료까지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엔진이다.

다중 연료 호환성을 자랑하는 것은 물론, 암모니아 연료의 경우 연소 시 탄소가 발생하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한다. 지속적인 개발이 이뤄져 경제성까지 확보한다면, 2050년 선박 넷제로 달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차세대 발전용 엔진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독성·폭발 걱정 NO! 안전성까지 확보

현재 글로벌 조선사들이 개발 중인 암모니아 추진선은 “암모니아의 독성 위험을 어떻게 안전하게 제거하느냐”가 개발의 핵심 이슈였다.



▲ 국제테크포럼



▲ 암모니아 엔진(H22CDF-LA)

HD한국조선해양은 이번 포럼에서 선박의 안정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독자기술로 개발한 일체형 암모니아 스크러버(Integrated Scrubber) 기술을 적용했다. 이 장치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를 두 차례에 걸쳐 흡수, 배출량을 제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차세대 친환경 기술이다. 또한 배기가스가 나가는 배출구를 선외 거주 공간과 멀리 떨어뜨려 배치하는 독자 설계로 안전 요소를 더욱 강화했다. 암모니아 연료를 사용한 엔진에는 eHBU(electro Hydraulic Boosting Unit)를 적용해 선박의

줄어 리크(Leak) 위험을 예방하는 등 안전성까지 대폭 강화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22년 연구개발을 시작해, 2023년 말 4행정기관의 암모니아 엔진의 연료 분사와 연소를 검증했다. 현재는 2024년 3분기 개발 완료를 목표로 시제품 엔진(H22CDF-LA) 시험에 몰두하고 있다. 이 기술은 탱커선의 발전용 엔진뿐만 아니라, 소형 선박의 (전기)추진 및 발전용 엔진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HD현대중공업은 향후 암모니아 추진 컨테이너선과 같이 출력이 큰 3.6~5.4MW급 H32CDF-LA 엔진도 개발 진행 중이며, 점차 암모니아 엔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가까운 미래에는 보다 다양한 선종의 암모니아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현장에 ‘언어장벽’이 사라진다 ‘쉽고 간편한 현장 맞춤형 번역 서비스’

외국인 근로자들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한 서비스 ‘삼파고(Sampago)’가 개발돼 현장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현장 의사소통의 기고

최근 제조업 내국인 생산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유입되고 있다. HD현대삼호는 사내협력사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 수가 2022년 1천856명에서 2024년 현재 3천565명으로 증가하며, 전체 인력의 36%를 차지한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협업하고, 일반적인 용어가 아닌 전문 현장 용어들이 난무하는 환경이다 보니, 현장에서 의사소통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HD현대삼호에서는 HD한국조선해양 AIC(AI Center)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업무 지원 서비스인 ‘삼파고(Sampago)’를 개발했다. ‘삼파고’는 HD현대삼호 사내 메신저인 ‘팀업’에 서비스 되고 있다. 지난 6월 전자 생산조직 및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테스트 버전을 출시했고, 유저들의 개선 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접수 받아 번역 품질과 UI 개선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흔히 사용하는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 번역기와는 달리, ‘삼파고’는 거대언어모델(LLM)과 연계해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 사투리, 조선 용어까지 잘 인식해 번역한다. 이에 따라 기존 번역기로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현장의 사소통 문제 개선의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파고’의 가장 큰 장점은 현장에서 작업을 지시할 때, 별도의 통역이나 개별 고지 없이 ‘삼파고’를 통해 한 번에 업무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는 베트남어, 태국어, 네덜어, 우즈베크어, 영어 등 5개국 언어에 대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7월 중으로는 번역 외 날씨, 식단, 주유 공지 등을 각국의 언어로 제공하는 알림서비스와 챗봇 서비스 론칭을 계획하고 있다.

이어 오는 11월에는 번역 언어를 10개국으로 확대, 2025년부터는 타이핑 없이 음성(Voice-to-Voice)으로도 소통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개발 목표를 갖고 추진 중이다.

기존 번역 서비스

“징크”와 같은 전문 표현이나 “죽장”과 같은 일본식 표현은 **일반적인 영역에서 사용되지 않아 번역이 잘 안됨**

[예시] 그라인더 후 징크 뿌리세요.

papago Grinder and sprinkle jinx. (x)

삼파고(Sampago)

[HD-GPT 번역 서비스]

현장&조선용어 사전 활용하여 LLM을 통해 **조선 영역에 맞게 문장을 풀어주는 번역이 잘 됨**

[예시] 그라인더 후 징크 뿌리세요.

After Grinding, Sprinkle Zine (0)

선박의 안전한 이동과 계류, 거센 비바람 불어도 문제없어요!

HD현대미포 외업3관 2층을 지나가다 보면 유독 눈에 띄는 곳이 있다. '선거팀'.
오래 이곳을 지나치는 사람들은 '투표를 하는 곳인가?' 하고 한번쯤 의문을 가진다.
하지만 선거(船渠)는 '투표'가 아니라 배 '선(船)'자에 개천 '거(渠)'자로 '도크(Dock)'의 한자식 표기다.
이름의 궁금증은 해결됐으니, 이젠 선거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도크에서 안벽까지 선박 이동 및 보호 역할 수행

신정우 팀장을 비롯해 총 30명의 선거팀은 △도크 내 선박 입출거 및 주수(注水) 전 고박, △계류 선박의 안전한 보전 등 도크와 안벽에서 선박의 이동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의 주된 업무는 안벽에 접안된 선박들을 고정용 밧줄(Mooring rope, 계류색)로 붙들어 매는 일이다. 바람이나 파도에 의해 선박이 요동쳐 로프가 끊어질 경우,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수많은 시우들이 땀과 열정으로 만든 선박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선거팀은 막중한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작업에 임하고 있다.

평소에는 3인 1조로 운영되는 선거팀이지만, 진수(Launching)를 할 때면 모든 팀원이 도크에 모여 원팀(One-Team)으로 뚝뚝 뚫힌다.

도크에 물이 채워지는 주수가 시작되면, 선박은 물에 뜨면서 조금씩 이동하게 된다. 하지만 HD현대미포의 경우 한 도크에 3~4척의 배를 동시에 건조하고 있어, 선박과 선박 사이 공간은 2m 남짓으로 작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선거팀은 선박이 도크 외벽과 부딪히지 않도록 육상과 연결된 로프를 풀고 감는 것을 반복함은 물론, 전후좌우 선박과도 일정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호선끼리 연결한 밧줄도 끊임없이 밀고 당겨야 한다.

강 위에 평온하게 떠있는 오리가 사실 물속에서 바삐 발을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선박이 안전하게 진수될 수 있는 이유는 선박 위에서부터 육상 아래 모든 선거팀원들이 한치의 실수 없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여름철 태풍 오고 강풍 불면 '긴급 비상출동'

장마와 태풍이 잦은 여름과 초가을은 선거팀에게 가장 힘든 시기다. 안벽에 계류된 모든 선박을 지키기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특히 올해는 일 북이 터졌는지 더욱 분주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 온도는 매년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4년은 평년보다 더욱 강력한 태풍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 생성 위치도



적도 부근에서 중위도 지역으로 바뀌면서 태풍 경로 역시 예측하기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선거팀은 벌써부터 유관 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며 충분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실제 HD현대미포에서는 2년 전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안벽에 계류 중이던 선박의 충격흡수재(펜더, Fender) 일부가 파손된 사고가 발생했다. 거대한 선박은 옆 외판에 작은 손상이라도 가해질 경우 배의 전복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선거팀은 밤새 긴급조치를 취했으며, 이들의 투철한 책임감 때문에 대형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선거팀은 평상시 선박을 고정할 때는 스프링 라인 4줄, 헤드라인(선수) 3줄, 스텐라인(선미) 3줄 등 10줄로 고정하지만 태풍이 오면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추가 로프를 동원해 선박을 고정시킨다. 현재 HD현대미포에서 사용하는 로프(90미터)는 총 300개로 전 계류색을 연결하면 무려 2만7천미터에 달한다. 이는 63빌딩(264미터)의 102배에 해당하는 길이다.

사실 태풍과 같이 큰 날씨 변화가 아니더라도 선거팀은 항상 긴

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선거팀은 늘 HD현대미포의 안벽 상황을 고려해 작업한다. 특히 안벽에 계류된 선박과 선박 사이 거리가 20~30미터 정도로 좁을 경우, 거센 파도에 선박끼리 충돌 우려가 있어 항상 계류 선박의 고박에 만전을 기한다.

평균 근속 25년, '팔방미인' 전문 엔지니어 포진

평균 근속 25년 이상인 선거팀은 많은 베테랑들이 포진돼 있는 만큼, 실력은 이미 회사 내에서 정평이 나있다.

선박이 안벽에 부딪쳐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펜더의 간단한 수리는 직접하고 있으며, 앵커(돛) 체인을 직접 조립 후 연결 및 설치하는 일도 맡고 있다.

또 현장에서는 '로백스'라 불리며 선거팀의 마스크로 알려진 로프 작업용 중장비 굴착기를 이용해 무거운 로프를 신속히 이동시키거나 계류 호선 고박 작업 등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이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면허증을 보유한 팀원은 10명이나 된다.

신정우 팀장은 "타 조선소의 경우 안벽에 접안된 선박은 시운전을 제외하곤 인도(Delivery) 전까지 한 곳에서 의장작업이 진행되지만, HD현대미포는 인도 척수가 많아 호선 이동이 상대적으로 잦다"며 "힘들고 어려운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다재 다능한 베테랑 팀원들이 있어 늘 든든하다"고 동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혼자서는 일을 할 수 없는 작업의 특성상, 다른 팀보다 더욱 끈끈하다는 선거팀. 이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의 더 큰 활약을 기대해본다.



후에서 유를 창조하다! 우리는 사막에 조선소를 짓는다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주베일(Jubail) 인근 라스 알 헤어(Ras Al-Khair) 지역의 **킹살만 조선산업단지(King Salman Maritime Complex)**에 'IMI 조선소' 설립이 한창이다. '조선업'이 없었던 사우디에 약 500만㎡ 규모의 조선소를 짓기 위해 오늘도 IMI사우디현장 파견팀은 열심히 뛰고 있다.

HD현대의 두 번째 해외 조선소, IMI 조선소

IMI(International Maritime Industries) 조선소는 HD현대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아랍에미리트(UAE) 에너지업체 람프렐 및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해운사 바흐리라와 합작해 설립 중인 조선소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제 다각화 프로젝트인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조선사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중동지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IMI 조선소는 약 500만 제곱미터(㎡) 크기로, 축구장 700개가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다.

이 조선소는 HD현대대표가 1996년 베트남국영조선공사와 베트남 현지에 HD현대베트남조선소를 세운 이후 HD현대의 두 번째 해외 조선소이기도 하다. HD현대베트남조선이 국내 조선사의 해외 조선소 운영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한 만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새로운 성공 신화를 써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그 신화의 시작을 열기 위해 IMI 조선소 건설 현장에 HD현대중공업 'IMI사우디현장 파견팀'이 나가 있다.



조선소 설립의 '시작부터 끝까지'

IMI사우디현장 파견팀은 IMI 조선소 설립과 운영 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다. 내업과-선행과-외업과-기술과-지원과 등 선박 건조 공정별 전문성을 고려해 구성된 5개과의 직원들이 각 공장 및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최대 생산 효율성을 고려한 조선소 구축에 앞장서고 있으며, IMI 현장에서는 본격적인 생산 가동을 위해 연말까지 100여명의 인원을 총원 예정이다.

기술과는 설계 제반 기술 지원을 비롯한 설계 기술 인력 교육 및 IT/ERP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지원과는 사업계획수립, 내·외업 공정 및 공수 관리 등을 담당한다. 공장 건설과 작업별 작업표준서 마련부터 생산인력에 대한 계획과 채용, 공장별 마련되어야 할 각종 장비와 차·공기규류 준비 역시 파견팀의 업무다.

하나의 조선소를 새로 만드는 일인 만큼 업무의 범위가 방대해 끈끈한 팀워크는 필수조건이다. 파견팀 직원들은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면 소속과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며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다. 매주 주제별 정기회의를 실시해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각 과의 현안을 공유한다. 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사안들은 담당자들이 수시로 만나 협업한다. 이처럼 끈끈한 팀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던 이유는 팀원 모두가 새로운 조선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어디서든 얻을 수 없는 보람을 느끼기 때문이다. 조선소의 모든 곳에 팀원들이 손길이 닿은 만큼 큰 자부심을 느끼며 일하고 있다고 한다.

타국 생활의 어려움, 동료와 함께 타파

언어·날씨·문화 등 많은 부분이 다른 타지생활이지만, 팀원들은 함께 생활하는 동료들이 있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다고 말한다. 팀원들은 모두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숙소에는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력 단련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주말엔 골프연습장에서 스크린골프를 친목을 도모할 수도 있다. 가격이 비싸 한식을 자주 먹진 못하지만,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한식당을 찾아 함께 식사를 하며 집밥에 대한 그리움을 풀곤 한다. 이슬람 문화 영향으로 음주가 금지돼 있어 술 대신 음료



로 아쉬움을 달랜다. 무더운 날씨 때문에 힘들지 않냐는 질문을 많이 받지만 대부분의 업무는 에어컨이 잘 설치된 실내에서 이뤄진다. 여름엔 49°C에 달하는 전형적인 사막형 기후인 만큼, 사무실은 물론 주거 공간에서도 항상 에어컨이 '뽕뽕하게' 돌아가 더위를 느끼지 못하는 시간이 많다.

영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가능하다면 언어 측면에서도 큰 어려움이 없다. 현장에 한국어를 잘하는 사우디 직원들도 있고, 중요 업무는 한국어를 함께 사용하며 진행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스스로 욕심을 가지면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가끔은 타국에서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곳에서 함께 지내는 동료들의 격려와 응원, 공감은 이를 이겨내는 원동력이 된다고 한다. IMI사우디현장 파견팀 팀원들은 일과 생활 모두를 함께 해내는 최강의 팀워크를 통해 해외근무에 대한 막연한 편견과 두려움을 넘어 세계 속 진정한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다.

취재 지원 및 자료 제공 이성열 책임매니저(IMI사우디현장)



외화 관리의 전문가들

“꼼꼼한 외화 관리로 안정적 성장에 힘을 보태다”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하고, 원유 대금 결제
제를 관리하는 등 외화 관리를 책임지는 HD현대
오일뱅크 국제금융팀을 만났다.

Q. 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정 팀장(책임)입니다. 개인적으로 신입사원 시절에 팀 소개 자료를 작성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 팀장의 자리에서 팀을 소개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네요. 저희 팀은 저를 포함 6명이 열정을 불태우고 있으며, 무역금융, 외환리스크 관리, 외화 입출금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Q. 국제금융팀, 구체적 업무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외화 관련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크게 네 가지 업무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활한 원유 도입을 위한 신용장 개설 및 원유 대금 결제 관리입니다. 국내외 은행 22개사와 무역금융한도 계약을 체결해 원유수

입을 위한 외화 차입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외환리스크 관리입니다. 우리 회사는 원유 수입과 석유제품 수출 규모가 큰 편이에요. 이에 외화 부채와 자산을 일별 관리해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화 입출금 관리 및 외국환거래법 검토입니다. 외화 입출금 시 외국환거래법 등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다양하기에 거래법을 잘 준수했는지 검토 후 해외 송금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상품파생거래 업무입니다. 최첨단영업실에서 상품파생거래 요청이 들어오면 내용을 검토한 후 은행과 거래를 이어가고 있어요.

Q. 업무상 꼼꼼한 일처리가 중요할 듯해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숫자를 다루는 업무이다 보니 꼼꼼하게 확인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중간중간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세밀히 검토하고 있어요.

아울러 저희 팀이 지원부서이기에 다양한 부서의 업무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 부서의 업무 프로세스를 전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질문을 많이 하러 노력합니다. 질문을 주고받다 보면 해당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더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요. 치밀한 확인과 적극적 소통, 저희 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Q. 일 잘하는 재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평소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까요?

제가 사원일 때 선배님이 해 주신 조언이 있습니다. 재정부문에서 일하면서 경제신문 하나는 꼭 보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었습니. 국내외 돌아가는 경제상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현황, 앞으로의 전망 등을 알 수 있고 회사 업무에 적용시켜 대처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 요즘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더욱 필요하겠죠.

또한 '회사'라는 조직에서는 직급에 따라 필요한 역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니저, 선임매니저 시절에는 무엇보다 업무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부딪혀보고, 공부하고, 사례도 찾아보고, 거래처에 질문도 하고 하면서 배우고 업무 능력을 습득하는 게 중요하합니다. 책임매니저가 되면 업무 전문성



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생각하며 노력하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올해는 국내외 경제와 금융시장이 불확실한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지속된 고금리 환경에서 가계 및 기업 경기는 좋지 않은데,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지 않아 금리 인하 시기가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유가와 환율도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요. 이런 시기일수록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존 업무를 더 충실히 수행해 급변하는 상황에 최대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금융기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국제금융팀 진행 프로젝트



- 1) 무역금융 및 분기말 부채비율 관리
 - 원활한 원유 도입을 위해 신용장 개설
 - 원유결제일정 관리 및 당잔기 외화 차입
 - 분기말 수출채권매각 및 원유 외상매입금 관리를 통한 부채비율 최소화



- 2) 외환리스크 관리
 - 외환 익스포저 및 손익 관리(자회사 포함)
 - 통화선도 헷지거래(자회사 포함)
 - 원유, 제품 파생 거래



- 3) 외화입출금
 - 외화 자금계획 및 실적 관리
 - 외국환거래법 준수 여부 확인

좌측부터 권혁권 매니저, 김세현 책임매니저, 이은무 매니저, 이현정 책임매니저(팀장), 백준우 책임매니저, 조민지 사원

“나에게 **HD현대** 란?”



HD현대중공업은 **새로운 여행의 시작** 이다.

조선 산업은 배의 설계부터 건조, 시운전, 인도까지 다양한 과정을 엮을 수 있는 '특별하고 매력적인 업종'이라 생각해요. 제가 업무를 하며 경험할 모든 과정들이 마치 새로운 여행의 시작점에 선 것처럼 설레고 기대가 되는데, 열린 업무들을 배워 차세대 선박 엔진의 우수한 품질 확보에 일조하겠습니다! HD현대중공업 화이팅

정윤지 매니저(엔진기계부품품질경영부)



HD현대미포는 **커다란 보람** 이다.

여전히 서툴지만, 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고 조달하며 안정적인 생산에 힘을 보태고 있어요! 특히 제가 담당한 자재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선박이 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커다란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의 자재 구매와 적기조달을 통해 회사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조주현 매니저(조달1부)



HD현대오일뱅크는 **도전과 소통의 장** 이다.

GRC, 대산 공장, 중앙기술연구원에 계신 임직원 분들과 소통하며, 많은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회사의 성장을 위해 끊임 없이 도전하고 있음을 몸소 느끼고 있어요! 두려움 없이 도전하며 회사와 개인 모두 성장할 수 있도록 저 역시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며 최적의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박준호 매니저(HR개발팀)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사회인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은 곳** 이다.

건설기계 3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수많은 도전을 통한 혁신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저에게 회사는 더욱 자랑스러운 곳입니다. 저 역시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 제 역할을 다하며 회사의 동반자로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박민주 매니저(회계팀)



HD현대일렉트릭은 **이정표** 다.

이정표는 가야할 길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처음 길을 개척하는 이가 다음 사람을 위해 남겨주는 기준이 되기도 하죠. HD현대일렉트릭은 '오늘의 필요'를 '내일의 잠재력'으로 발전시키는 곳이며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술로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후대의 기술에 대한 이정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자관 매니저(배전해외영업2부)



HD현대마린솔루션은 **인생네컷** 이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저에게 성장, 도전, 좌절, 동료에게까지 네 가지의 한 컷에 담을 수 있게 만들어준 소중한 회사예요. 덕분에 제 앨범은 항상 회사 동료들과의 추억으로 가득 차있습니다. 앞으로도 앨범 속에 첫 사회생활의 인생네컷을 가득 담아보겠습니다!

김영은 매니저(영업기획부)



HD현대로보틱스는 **현장의 세련화** 다.

현장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현장에는 무수히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HD현대로보틱스는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되고, 다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현장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저도 열린 성장해 최적화된 로봇 모션과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로 세련된 현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문현진 엔지니어(어플리케이션기술팀)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발전하는 곳** 이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태양광 에너지 토털 솔루션 기업으로 끊임없이 발전해 가고 있어요. 저도 발전량 모니터링, 전력중개사업, O&M 등과 관련된 ICT 기술로 고객에 편의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더욱 확장된 태양광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 화이팅!

최관호 매니저(ICT팀)



'첫 글로벌 기술 강사' 인도에서 온 '라지 수던'

HD현대건설기계가 신규 글로벌 기술 강사를 채용해 약 1개월간 글로벌교육센터 음성캠퍼스에서 강사 양성 교육을 진행했다. 글로벌 기술 강사는 해외 딜러사 정비 인력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HD현대건설기계 글로벌교육센터에서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 지난 4월 모집에 나서 5월 인도법인(HCEI) 소속으로 채용을 완료했다. 뛰어난 역량을 바탕으로 첫 글로벌 기술 강사로 채용된 라지 수던(RAJ SUDHIN) 강사를 소개한다.

 라지 수던(RAJ SUDHIN) 강사 인터뷰

글로벌 딜러 기술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도에서 온 1992년생 라지 수던이라고 합니다. 저는 HD현대건설기계의 첫 글로벌 기술 강사로, 건설기계 업계에서 약 10년간 몸을 담고 있습니다. 인도 현지의 글로벌 건설기계 기업에서 딜러 지원 및 서비스 엔지니어로 약 6년간 활동했고, 이후 기술 트레이너로 4년간 근무하며 현장 경험을 쌓았습니다.

한국 음성 글로벌교육센터에서는 제가 앞으로 인도법인에서 가르쳐야 할 수강생들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Stage-5', 'HX 굴착기 A 시리즈', 'HL900A 휠로더' 등 HD현대건설기계 주요 장비에 대해 상세하게 배우고, 각 장비들이 가진 특징들과 장점을 수시로 메모했습니다. 또, 제가 모르는 것이나 궁금한 것이 있을 때면 늘 훌륭한 강사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HD현대건설기계의 제품에 대해 빨리 익힐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교육을 마친 후 HD현대건설기계 인도법인으로 복귀해 주로 중동·아프리카 딜러 정비 인력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얻은 좋은 기억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HD현대건설기계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비 인력의 기술력 향상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서로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된 남매

두 남매는 같은 부서 소속으로, 조유진 선임매니저는 HD현대중공업 마린과에, 조재희 매니저는 HD현대삼호 마린과에서 근무한다. 담당하는 고객사와 야드만 다를 뿐, HD현대에서 건조된 모든 배가 전 세계에서 잘 운항될 수 있도록 보증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올해로 6년차인 조유진 선임은 조재희 매니저가 입사 초기일 때 이메일 세팅부터 통합영업관리 시스템 MAPS 사용법까지 도와줬다. 하지만 동생이 6개월 차가 된 지금은 동생만의 업무 스타일을 찾길 바라며 오히려 조언을 아끼고 있다. 조유진 선임이 든든한 선배의 역할을 한다면, 조재희 매니저는 튼튼한 동생의 역할을 한다. 어두운 퇴근길을 기다려 함께 집으로 향하고, 보증 출장 업무에 필요한 작업복이나 작업화 등 무거운 짐도 누나 대신 거뜬히 들어준다.

심지어 둘은 같은 대학의 같은 조성과 출신. 조재희 매니저는 코로나로 재택근무 하는 누나의 회사에 관심을 가졌다. 조유진 선임이 먼저 길을 잘 닦아놓은 덕분일까. 조유진 선임은 동생이 면접을 앞두고 긴장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요즘은 퇴근하고 나서도 자연스럽게 업무 이야기를 꺼낸다고 직장인 태가 제법 나는 동생을 부듯해 했다.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이어 같은 직장까지. 자칫 보면 조재희 매니저가 조유진 선임을 쫓아다니는 누나바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반대다. 조유진 선임은 어릴 적부터 삼남매 중 막내인 조재희 매니저가 늘 의젓해서 쫓아다녔고 요즘도 동료로서 차분하게 보증 업무를 해내는 막내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한다.

연인 아니고 남매입니다!

조유진 선임은 2024년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장으로서 매 분기 노사협의 정기 회의를 운영하며 회사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둘은 공과사를 구분하기 위해 남매 사이라는 것을 사내에 적극적으로 알리지는 않았는데 그 때문에 생겨난 작은 해프닝도 있다. 같은 집에서 출퇴근하는 남매를 보고 커플이라고 소문이 난 것이다. 조유진 선임은 "지금은 많은 동료들이 남매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도 종종 이상한 소문이 들린다"고 웃으며 말했다.

조유진 선임과 조재희 매니저는 한 직장에서 남매가 함께 일하는 것에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업무에 대한 고민도 편하게 나눌 수 있고, 남매 관계도 돈독해지니 부모님 걱정도 확실하게 덜어드렸다고 한다. 존재만으로도 마음 한 구석이 든든해지는 찝찝 같은 존재. 두 남매가 한걸음 한걸음 함께 성장하길 기대해본다.



가족 같은 회사에서 진짜 가족을~?!

같은 집에서 출퇴근도 함께, 같은 부서에서 근무도 함께하는 남매가 있다. HD현대마린솔루션 마린스마케팅부 조유진 선임매니저와 조재희 매니저를 만났다.

New 봉사관 출범 HD현대 MZ 직원들이 뭉쳤다!

HD현대 MZ세대 직원들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HD현대 MZ봉사단 발족

HD현대1%나눔재단(이사장 권오갑)은 올해 3월, 'HD현대 MZ봉사단'을 발족했다. MZ봉사단은 HD현대 임직원들 중 20~30대 젊은 직원들이 주축이 돼 만든 새내 봉사단으로, HD현대 MZ직원이라면 누구든 참여가 가능하다.

HD현대1%나눔재단은 올해 1월, HD현대 MZ세대 직원들을 대상으로 '참여하고 싶은 사회공헌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과 6월 목소리 기부 봉사활동을 진행했고, 5월에는 환경 팝업북을 제작했다.

HD현대1%나눔재단 관계자는 "향후에도 MZ세대의 다양한

관심사를 접목해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는 유기견 봉사나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영화 제작 활동 등을 기획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목소리 기부'로 다문화 가정 도와

HD현대 MZ봉사단은 올해 3월, 출범 후 첫 활동으로 '목소리 기부' 행사를 진행했다. 봉사단원 30명이 HD현대 글로벌R&D 센터(GRC)에 모여,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 가정을 위한 도서 낭독 녹음을 했다. 이들은 더 실감 나는 연기와 낭독을 위해 전문 성우로부터 발성, 발음, 연기, 호흡 등 보이스 트레이닝 교육



을 받았다. 봉사단원들은 동화책 속 머느리역, 할머니역, 옥황상제역 등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며 혼신의 연기를 펼쳤다는 후문이다.

활동에 참가한 MZ 직원들은 한결같이 "기존의 봉사가 '무조건 돕는다'라는 식의 의미가 강했다면, MZ봉사단의 활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여서 함께 힐링이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밖에도 "함께 활동하며 재밌게 웃고 친해지면서 서로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타인에게 봉사하는 시간을 갖기 힘들었는데, 동료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돼 더욱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온다" 등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뤘다.

HD현대1%나눔재단은 이렇게 만들어진 녹음본을 15대의 '오디오북 단말기'에 담았다. 그리고 지난 4월, 180권의 책과 함께 성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울산 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달했다. 성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의 한국어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지원 활동을 크게 반겼다. 성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언어발달지원서비스에 참여 중인 다문화 가정의 한 베타맘인 아버지는 "그동안 아이가 책을 읽어달라고 했을 때 해줄 수가 없어 안타까웠는데, 함께 책을 볼 수 있게 돼 감동이 밀려왔다"며 감격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울산남구가족지원센터 역시 오디오북을 울산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울산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분산 배치, 대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오디오북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 HD

현대1%나눔재단은 '목소리 기부' 봉사활동을 추가로 실시했다. 또한 HD현대는 유튜브를 통해 MZ봉사단 출범과 오디오북 녹음 전 과정을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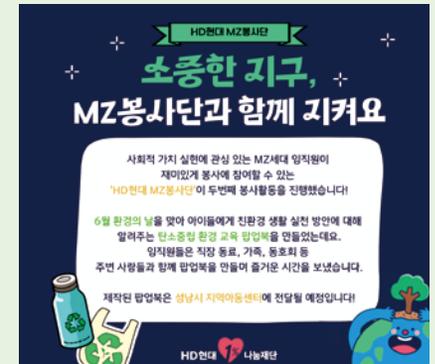
탄소중립 한눈에, '환경 팝업북' 제작

지난 5월에는 '취약계층 아동을 돕는 환경 팝업북 제작'이 진행됐다. HD현대1%나눔재단은 지난 4월 말 MZ봉사단 2기 신청을 받았다. 팝업북 제작을 위한 키트 역시 곳곳에 비치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직원들이 집 또는 편한 장소에서 자유롭게 팝업북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해 봉사에 대한 부담을 덜고, 가족이나 동료 등 주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팝업북에는 탄소중립이 무엇인지, 일상생활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입체적으로 담겨 있어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토록 돕고 있다.

팝업북 제작에는 총 200여 명의 직원들이 동참했으며, 성남상공회의소 회원사 등이 추가적으로 참여해 총 350권이 제작됐다. 해당 팝업북들은 성남에 위치한 중탑지역아동센터에 전달돼 저소득층 계층 아이들의 학습용 교구로 사용될 예정이다.

팝업북 제작에 참여한 봉사단원은 "동료, 지인, 가족, 동호회 등 주위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봉사라 더욱 즐거웠다"며 "부담 없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봉사활동이 더욱 가볍게 느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울이가 걱정 없이 행복하면 좋겠어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정윤지 씨(가명, 42세)는 생활고에 시달리며 견뎌왔다. 그녀의 고난은 끝나지 않고 있지만, 지금은 소울(가명, 5세)이라는 빛나는 존재와 함께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사랑의 힘으로 극복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절망 끝 한줄기 빛과 같은 사랑

윤지 씨의 어린 시절은 평범하지 않았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20대 초반부터 생활고에 시달리며 누구보다도 일찍 세상의 무게를 견뎌야 했다. 크고 작은 시련에도 그녀는 밝은 성격을 잃지 않았고, 작은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윤지 씨의 인생에 뜻밖의 사랑이 찾아왔다.

피터 씨(가명)는 한국으로 여행 온 외국인이었다. 2018년 레스토랑에서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첫 눈에 사랑에 빠졌다. 장거리 연애는 쉽지 않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거리마저도 극복하게 했다. 시간이 흘러 윤지 씨는 피터 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됐고, 두 사람은 양국에 혼인신고를 하며 소중한 가정을 이루기로 결심했다. 2019년에는 그들의 사랑의 결실인 소울이가 태어났다.

엿친 데 덮친 격, 생활고에 이은 투병 생활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피터 씨와 윤지 씨는 소울이를 보며 작은 행복을 찾았다. 하지만 코로나 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 피터 씨는 고향과 한국을 오가는 것이 힘들어졌고, 윤지 씨는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와 소화 불량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2020년 5월 위암 판정을 받았다. 이어지는 갑상선암, 난소암 판정으로 그녀의 투병 생활이 길어졌다.

현재 윤지 씨는 2주에 한 번씩 항암치료를 받으며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 치료 후 부작용으로 기력이 없어서 하루 종일 누워 있는 날도 많다.

다행히 소울이의 외할머니가 종종 울산에 와서 윤지 씨가 치료를 받는 동안 소울이를 돌봐주고 있지만, 외할머니 역시 넉넉지 않은 형편으로 농장 일과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며 교통비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사이 피터 씨의 연락은 뜸해졌고, 현재 윤지 씨는 피터 씨로부터 소울이의 양육비조차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생계급어 100여만원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매달 버드한 생활의 연속이다. 과거 생활고로 인해 빌린 채무는 이자가 크게 불어나며 독촉장을 받기도 했다. 결국 윤지 씨는 파산 신청을 했고,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불안정한 주거 환경 또한 문제다. 윤지 씨는 소울이와 함께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퇴거 위기에 처하자, 지인의 도움을 받아 급히 다른 집으로 이사하게 됐다. 현재는 집주인의 양해로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며 생활할 수 있게 됐지만, 윤지 씨는 언제 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지 모른다는 생각이 보증금 마련이라는 걱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주거 지원이 절실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마련된다면 윤지 씨는 치료에 전념할 수 있고, 소울이도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것이다.

그 와중에 병원에서 모양이 좋지 않은 병변이 또 발견돼 최근 추가적인 조직 검사와 시술을 받게 됐다. 윤지 씨는 혹시라도 본인이 잘못될 경우 소울이가 혼자 남겨질까 봐 걱정이 앞선다. 남편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는 피터 씨와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법적 보호자 없이 아무런 도움조차 받지 못할 소울이를 생각하면 그 결심은 다시 무너져 내린다.

삶의 활력소 소울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소울이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밝은 성격의 소울이는 엄마와 외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충추는 것도 좋아하고 재질재질 이야기도 많이 해 동네 어둠이나 이웃들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소울이는 스케치북으로는 모자라 집



벽면에 위치한 화이트보드 앞에 자리 잡고 앉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림을 그린다. 번듯한 미술 용품이 없어도 소울이는 마냥 즐겁다. 집에 있는 어떤 물품도 소울이의 손만 거치면 특별한 미술 재료가 돼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하기 때문이다.

최근 소울이는 영어 공부도 시작했다. 모든 게 신기할 나이,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면 늘 열심히 하려는 소울이의 모습에 윤지 씨는 기쁘다기도 또 마음껏 지원해 주지 못하는 본인의 상황에 이내 눈시울이 붉어진다.

윤지 씨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울이를 사랑으로 키우고 있다. 다행히 소울이는 또래와 비슷한 발달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윤지 씨가 앞으로 소울이 옆에서 돌봐주려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 희망을 잃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이 가족에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날지 소망한다.

※ HD현대와 초록우산은 모든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아동 보호 정책을 준수합니다. 아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과 모자이크가 사용되었습니다.

도움계좌

농협중앙회 79012914604322(예금주: 어린이재단)

문의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울산지역본부 ☎ 052)275-3456



국가대표부터 클럽월드컵까지... '좋아요' 안 누르고는 못 배길 걸?

HD현대가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팬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사업 및 제품에 대한 홍보부터 임직원 브이로그(V-log), 사내·외 이색 이벤트 등 신선한 볼거리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 코너에서는 SNS 팔로워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거나 최근 업로드 된 '달성부들' 게시물들을 함께 소개한다.



HD원정 응원단이 간다!

“울산 HD FC의 K리그1 3연속 우승을 기원합니다”

최근 HD현대 유튜브 채널에는 울산 HD FC의 원정경기를 찾은 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와 퀴즈쇼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에는 '원정경기 관람을 위해 어디에서 왔는지', '언제부터 울산 HD를 응원했는지' 등에 내용이 담겼다. 특히, 울산 HD의 메인 스폰서 기업이 어디인지를 묻는 질문에 다양한 답변들이 나와 탄식과 웃음을 자아냈다.

HD현대에는 현재 울산 HD의 원정경기 현장을 찾는 팬들을 대상으로 스태프 투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울산 HD를 위해 원정 응원에 나선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응원 열기를 한층 고조시키기 위함이다. '스태프 투어 이벤트'는 울산 HD 원정경기 현장을 직접 찾은 팬들에게 경기당 1개의 스태프를 지급하고 스태프를 획득한 팬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울산 HD 선수단 및 스태프 등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1명에게는 내년 미국에서 열리는 FIFA(국제축구연맹) 클럽 월드컵 현장 직관의 혜택도 제공된다.

FIFA 클럽 월드컵의 유일한 국내 참가 클럽, 울산 HD! HD현대가 응원합니다.♥



“나는 국가대표입니다”

기능인들이 서고 싶은 꿈의 무대,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전세계 기능인들과 같이 땀은 실력을 겨룰 HD현대중공업 3인방이 떴다!

HD현대중공업은 오는 9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제47회 리옹 국제기능올림픽에 참가해 금빛 메달 상상에 나서는 김동현(철공구조물), 김준수(CNC선반), 강도영(배관) 사주의 인터뷰를 '하이잡스' 코너에 2개 영상으로 공개했다.

세 선수들은 지난 2023년 6월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된 이후 1년 여간 기술교육원 지도교사들과 교육과 훈련을 거듭하며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영상 1편에서는 선수마다 참가 종목, 훈련 과정, 출전 각오에 대해 밝혔다. 이와 함께 '국대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하며 구독자들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자극한다. 2편에서는 선수들이 출전 종목을 선택한 계기 등을 이야기하고, 국제기능올림픽 관련 O/X 퀴즈도 함께 풀어본다.

두 달여 앞으로 대회가 성큼 다가왔다. 흘러왔던 땀방울만큼 값진 성과를 이뤄낼 세 선수들의 멋진 활약, 그리하여 "금메달 썰"로 이어질 후속 영상들을 기대해본다.(하이팅!)



금빛 메달 함께 응원!

신개념 블라인드 소통 콘텐츠 '일일톡'

HD현대일렉트릭은 지난 4월 26일(금)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일일톡' 1화를 공개했다. '일일톡'이란 HD현대일렉트릭 임직원 2인이 익명으로 카카오톡 상에서 회사와 일에 대해 소통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으로, 지난 4월 HD현대일렉트릭의 공식 SNS 채널(인스타그램·유튜브·링크드인) 개편 이후 최초 공개된 신규 콘텐츠다.

'일일톡' 1화의 주인공은 배전해외영업 담당임원 김세용 상무와 고준혁 매니저(배전사업지원팀). 두 사람은 인사 스토리, HD현대일렉트릭의 장점, 회사 생활 관련 밸런스 게임, 나만의 회사 생활 꿀팁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들은 대화에서 드러난 상대방의 말투, 가치관 등을 통해 서로의 나이와 직급을 유추했다. 김세용 상무는 고준혁 매니저를 약 5~8년 차 직원이라 추측했고, 고준혁 매니저는 평소 안면이 없는 이라 말하며 두 사람은 결국 서로의 정체를 맞추지 못했다. 두 사람이 같은 본부 소속이며, 평소 근무하는 자리 역시 매우 가까이에 있었다는 점이 웃음 포인트!

일일톡 2화는 3년 차 동기 간 솔직담백한 이야기, 3화는 전기 VS 기계 전공자 간의 솔직한 대화를 다루며 매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오늘 만큼은 반모해요

“자연에서 얻은 영감으로 만드는 세상의 모든 에너지”

'hdo 패션필름'은 '자연'이라는 원천에서 영감을 얻어 세상의 모든 에너지를 만드는 HD현대오일뱅크라는 컨셉으로 촬영됐다. 임직원들이 직접 SNS 캐릭터를 활용해 제작된 의상을 입고 출연하여, 기존의 딱딱한 정유업 이미지를 탈피하고 젊고 활기찬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특히 3대 친환경 미래 사업(블루수소, 화이트바이오, 친환경 화학소재)에 대한 언급으로 비전까지 엿볼 수 있다는 점!

2024년 초, HD현대오일뱅크 유튜브 채널인 '현대오일정(hdo)'의 대대적인 리브랜딩과 함께 공개된 영상으로 채널에 가볍게 입문하기 좋은 영상이다. 국내 최초 민간 정유회사에서 친환경 에너지 플랫폼까지, 앞으로 미래가 더 기대된다.



세상의 모든 에너지

“야드에 이어 GRC까지” 서부초 한울림합창단 노래로 전한 올림

“하쿠나마타타, 모든 것이 잘될 거예요!”

울산 소재 서부초등학교 소속 ‘한울림 합창단’ 학생들이 GRC에서 특별 합창 무대를 꾸몄다.



GRC에 올려 퍼진 천사들의 합창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에 어린 천사들의 희망찬 합창 소리가 울려 퍼졌다. HD현대는 지난 7월 2일(화) 울산 서부초등학교 ‘한울림 합창단’을 GRC로 초청, 특별 공연을 실시했다. ‘한울림 합창단’은 울산 서부초등학교 소속 학생 40여 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으로, 단원 중에는 아공간 국악과 다문화 가정 자녀 9명이 포함돼 화합과 공존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한울림합창단은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열린 세계문화축제에 참가해 이름을 알렸고, 올해 3월에는 새롭게 선발된 합창단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GRC HD스퀘어에서 펼쳐진 이날 특별 공연은 ‘한울림 합창단’의 열창하는 모습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미디어월을 통해 상영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 합창 단원들은 ‘모든 것이 잘될 거니 걱정하지 말라’는 뜻의 ‘하쿠나마타타’를 합창한 후 응원대 격려의 의미를 담아 ‘달팽이의 하루’, ‘높이 날아올라’를 불렀다. 국적이 관계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하나의 목소리가 돼 만든 합창 무대에 이를 지켜보던 GRC 임직원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이날 공연에 참여한 참가한 김류영 양은 “노래 속 가사처럼 높이 높이 날아올라 언젠가는 우리의 꿈이 꼭 이뤄질 거라 믿어요”라며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프간 국적이 마르와 군은 “너무 멋진 장소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 돼 꿈만 같았다”며, “앞으로도 합창단 친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무대를 꾸며 나가겠다”고 공연에 참가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공연을 마친 뒤 한울림 합창단 단원들은 한국잡월드에서 방음대 친환경 선박, 그린 에너지, 스마트 건설 관련 직업 체험 콘텐츠를 경험하며 미래의 꿈을 키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세계 최고 야드에서도 공연했어요!”



앞서 HD현대1%나눔재단(이사장 권오갑)은 HD현대중공업과 지난 5월 어린이날을 맞아 서부초등학교 한울림 합창단과 특별한 무대를 꾸몄다.

한울림 합창단 학생들이 HD현대중공업 영빈관·본관과 현대예술관을 방문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인 것.

올해 3월 새롭게 선발된 합창단원들은 방과 후에 함께 모여 연습하며 호흡을 맞췄고 큰 무대에서 도 떨지 않고 완벽한 무대를 선보일 만큼 기량이 올랐다.

또 학생들은 공연 당일 HD현대1%나눔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합창단 단복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몸에 꼭 맞는 단복으로 자신감을 더한 단원들은 서로의 눈을 맞춰가며 멋진 하모니를 연출했다.

합창 공연을 준비하며 있었던 학생들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교장선생님을 비롯해 합창 무대를 위해 뜻을 모은 많은 사람들의 인터뷰는 HD현대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GRC 공연 영상도 추후 업로드 될 예정이다.

천사들의 합창에 함께한 ‘드림하모니’





울산 HD X HD현대중공업 울산 HD 선수들을 군함에 접목시키다!

울산 HD가 HD현대중공업과 협업해 만든 포토카드 'The Blue Guardians' 로 팬심을 사로잡았다.

호국보훈의 달 맞아 이색 포토카드 출시

울산 HD와 HD현대중공업이 협업해 선수들을 군함에 접목시킨 참신한 포토카드를 출시했다. 울산은 HD현대중공업과 함께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The Blue Guardians'라는 이름의 포토카드 언락 모먼트를 지난 6월 12일(수) 출시하며 팬들의 소장 욕구 자극했다.

언락 모먼트는 울산이 올 시즌 K리그 최초로 협업 출시한 온-오프라인 포토카드 상품이다. 베이직 에디션과 시즌 중 이슈에 맞춘 스페셜 에디션으로 출시되는 언락 모먼트 포토카드는 경기장 안팎에서 팬들이 울산 구단을 즐기는 데에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에디션은 오랫동안 구단을 지원해 오고 있는 HD현대중공업과 협업해 출시됐다. HD현대중공업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군함 건조'와 울산의 선수단을 투영시켜 재밌는 포토카드를 준

비한 것이다. 특히 6월 호국보훈의 달에 해당 이벤트를 진행하며 화제성을 더했다.

선수들 특성 살려 함정과 매칭

울산 FC에서 활동한 설영우는 고도화된 인공지능 무인 수상정(USV) '테네브리스(Tenebris)'와 함께 포토카드에 등장했다. 테네브리스는 라틴어로 어둠을 뜻하며, 은밀하게 적진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테네브리스와 그라운드에서 공격과 수비를 넘나드는 설영우의 플레이 스타일을 빗대 제작됐다.

엄원상은 HCX-23(무인 전력지휘 통제함)과 나란히 카드에 담겼다. 다소 생소한 이름이지만, 공중/해상/수중에서 다른 군함들과 협력해 상태를 정찰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HCX-23과 평소 어느 파트나와도 함께 조화롭고 빠르게 상대를 압박하는 엄원상이 함께 카드를 장식하고 있다.

▶ 협업 포토카드 출시
왼쪽부터 조현우, 설영우, 엄원상 선수



마지막으로 울산을 지키는 수문장 조현우는 CVX(경 항공모함)과 함께 카드에 실렸다. 항공기들을 탑재해 국토와 아군을 광범위하게 수호하는 CVX 특징과 울산의 골문 그리고 팬들의 기쁨을 선방으로 지키는 조현우를 연상시켜 카드를 제작했다.

'The Blue Guardians' 에디션 포토카드는 지난달 12일(수) 울산 구단의 언락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판매, 하루 만에 매진을 기록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HD현대 그룹사들과 활발한 홍보

울산 HD FC는 HD현대중공업과 함께 '언락 모먼트' 카드를 연계한 이색 이벤트 행사도 진행했다. 지난 6월 26일(수) 울산 문수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대구FC와의 홈경기에서 엘리트 골드 모먼트 카드 등 특별한 경품이 증정되는 언락 모먼트 카드를 뽑은 팬들을 위한 증정식이 진행됐다.

이날 대구FC와의 경기 전 시간을 활용해 엘리트 카드와 골드 카드를 뽑은 울산 HD 팬들에게 설영우·조현우·엄원상 선수의 사인이 기재된 유니폼과 특수 제작된 대형 포토카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양함 퍼즐 등이 경품으로 증정됐다. 이어 선정된 팬들은 울산 HD FC 선수 전원을 만나 하이파이브하는 특별한 시간도 가졌다. 특히 엘리트 카드 시상에는 HD현대중공업 이상근 사장, 울산 HD FC 김광국 대표, 대한민국 해군 강정호 잠수함사령관이 참석해 팬들을 축하했다.

또 HD현대중공업은 경기 전 울산 HD 팬들에게 HD현대중공업을 알리는 인터뷰 시간을 갖고, 실물 언락 모먼트 카드 600장을 선물했다.

울산 HD는 이 외에도 HD현대 그룹사들과 활발한 공동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16일(일) FC서울과의 하나은행 K리그1 2024 17라운드 경기에서는 HD현대일렉트릭과 함께 브랜드 데이를 펼치고, 이를 기념해 울산 선수단은 브랜드 데이 기념 핑크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섰다.

또 HD현대 조선 3사(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상호)가 발행한 사보 6월호에는 울산 구단의 클럽 월드컵 진출을 축하하는 포스터가 후면 표지로 실렸고, 삽지로 울산 선수단의 사인이 임의로 동봉돼 사우들과 그룹사의 응원과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글 강한프로(울산 HD FC)



낭만주의를 노래하다 손열음&스베틀린 루세브 듀오 리사이틀

세련된 예술성과 지성이 깃든 해석,
한계 없는 테크닉을 지닌 피아니스트 손열음
유려한 선율과 독보적인 기교가 돋보이는
바이올리니스트 스베틀린 루세브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선보이는
첫 무대가 오는 9월 현대예술관에서 펼쳐진다.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조화로운 선율

완벽한 호흡, 흠 없는 연주로 전 세계가 열광하는 '손열음'과 '스베틀린 루세브'가 오는 9월 울산에서 듀오 무대를 펼친다. 정교하고 입체적인 사운드로 호평을 받아온 두 연주자는 이번 리사이틀에서 코른골드, 프레, 왁스만 그리고 슈트라우스 곡을 선보이며, 새로운 세계가 태동하던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작곡한 곡들을 선보인다.

세련된 예술성과 지성이 깃든 해석, 그리고 한계 없는 테크닉을 지닌 피아니스트 손열음과 유려한 선율, 독보적인 기교가 돋보이는 비르투오조 스베틀린 루세브가 만나 피아노와 바이올린, 두 악기의 특별한 사운드를 환상의 호흡으로 전달한다.

피아니스트 손열음은 2011년 제14회 차이콥스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준우승, 모차르트 협주곡 최고 연주상, 콩쿠르 위촉 작품 최고 연주상을 수상했으며, 평창 대관령 음악제 예술감독을 역임했다. 그녀는 독보적인 음악성·남다른 통찰력과 지성을 바탕으로 한 해석으로 세계의 뜨거운 주목을 받으며 이 시대 새로운 예술가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손열음은 피아니스트 중에서도 관객들과 소통이 가장 뛰어난 연주자로 알려져 있다.

스베틀린 루세브는 바로크에서 현대까지 광범위한 레퍼토리를 자랑하며 세계각지의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불가리아 루세에서 태어난 그는 바이올리니스트였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바이올린을 시작했으며 10대에 프랑스로 건너가 파리국립고등음악원에서 공부했으며 현재 파리국립고등음악원의 교수로 후학을 양성 중이다.

PROGRAM

- **에리히 볼프강 코른골드**
극음악 "헛소동(원작: 윌리엄 셰익스피어)" 주제의 네 곡, 작품번호 11
- **가브리엘 포레**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1번 가장조, 작품번호 13
- **프란츠 왁스만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원작: 리하르트 바그너)" 주제의 "러브 뮤직"
-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내림마장조, 작품번호 18

공연정보

일시 2024. 9. 10 (화) 20시
장소 현대예술관 대공연장
티켓 R석 70,000원, A석 50,000원, B석 40,000원
(HD현대 임직원 20-30% 할인)
등급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초개인화 사회 속 돌봄 경제

최근 한 저널리스트가 재미있는 사진을 보여줬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그녀와 11세 아들, 아들의 어린 시절에 입주 도우미로 일했던 70대 조순족 할머니, 그리고 그 할머니가 다시 돌보기 시작한 90대 할아버지, 이렇게 넷이 고깔 모자를 쓰고 생일 케이크의 촛불을 끄는 장면이었다. 이제는 장애가 없더라도 누구나 보살핌을 받을 수 있고, 가족이 아니더라도 누구든 돌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돌봄이 필요해지는 곳에서 새로운 관계의 고리가 시작되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적 효과

'돌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아이, 할머니, 할아버지 등 노약자가 먼저 떠올랐다면 이제는 그 관점에 변화가 필요하다. 돌봄이란 타인이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제는 누구나 돌봄의 주체가 되는 동시에, 돌봄의 대상이기도 한 시대이다. 이처럼 돌봄 활동이 가족의 경계를 넘어 사회적, 기술적으로 확장되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고 있는데, 돌봄이라는 영역이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성장하는 현상을 '돌봄경제(Care Economy)'라고 한다.

돌봄경제는 누가 누구를 어떻게 돌보느냐를 기준으로 배려 돌봄, 정서 돌봄, 관계 돌봄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배려 돌봄은 환자 장애인 영유아 어린이 고령자 등 혼자서는 생활이 불편한 사람들의 신체적 어려움을 챙겨 줄 수 있는 돌봄이다. "한 사회의 수준을 보려면 그 사회가 약자를 어떻게 보살피는지 보면 된다"는 말이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환자, 영유아, 고령자 등 혼자서는 생활이 불편한 사람들의 신체적 어려움을 챙겨줄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돌봄 인력을 매칭해주는 서비스는 물론이고, 원격 돌봄을 지원해 주는 기술도 시장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편, 요즘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돌봄은 마음을 돌보는 일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해 도움을 받고, AI 스피커를 통해 고립감을 해소하는 방법들도 확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계 돌봄은 약자를 '일방적으로' 돕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돌봐주는 것을 말한다.

최근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지역사회 내 느슨한 유대관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매일 배달하는 우유로 안부를 묻기도 하고, 골목의 작은 카페나 독립 서점에서 주민들을 알아봐 주며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기능을 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다.

함께 살아가는 돌봄 경제

돌봄이란 건 그 사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존엄을 돌보는 것이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커리어를 돌보는 것이다. 1분 1초가 아쉬운 나노사회, 분초사회에서 이 돌봄의 시스템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돌봄이 경제적 이슈로 대두되는 이유는 결국 돌봄이 개인의 문제임과 동시에 조직과 사회의 건강과 경쟁력을 책임지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사회의 가장 중요한 축인 만큼 이전 돌봄을 연인이 아닌,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때다.

모두가 돌봄의 대상이다. 엄마도 엄마가 필요함을 인식하면서 파편화되는 사회를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

글 김숙향 주부리포터(HD현대중공업)



디지털 대변혁의 시대, 조선업을 언번들링 (Unbundling)하라

디지털 혁명이 만드는 새로운 세상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디지털 업계를 넘어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 2022년 등장한 인공지능 기반 채팅서비스 ChatGPT가 대표적이다. ChatGPT는 인간의 언어를 스스로 학습해 만든 거대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요청하는 내용에 대한 지식 제공뿐만 아니라, 소스 코드 작성, 그림 및 영상까지 생성한다.

이처럼 Chat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인간은 지금껏 인간만의 능력으로 여겼던 창의력에 인공지능으로부터의 침범을 받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데이터 쪼개리'로 혹평 받기도 하고, '폰지 사기'라 누명을 쓰기도 한 비트코인은 이제 금(약 1.5억 원), 은(약 1800조 원)을 제친, 세계 7대 시가총액의 자산이 됐다.

얼마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비트코인ETF 상품 승인은 쿼터 높은 월가의 금융인들이 더 이상 비트코인을 논외의 투자 대상으로 볼 수 없게 된 하나의 사건이자 대변혁이었다. 이제 우리 인류는 더 이상 물리적 형태가 있는 것이나 화폐가 아니며, 국가나 금융기관 같은 중앙화 된 조직이 승인한 것만이 자산이 아님을 받아들여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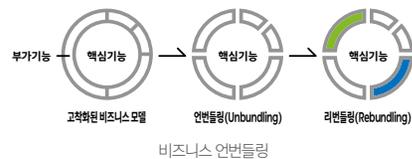
이처럼, 최근 디지털 기술로 인한 세상의 변화는 기존의 질서와 방식, 시스템 그리고 우리의 관념을 파괴적으로 혁신하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세상의 변화는 자연스레 대부분의 산업에서 비즈니스의 모습들을 바꿔놓고 있으며, 기업들이 갖춰야 할 경쟁력과 핵심 역량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제조업의 언번들링과 리번들링 혁명

제조업 또한 예외는 아니다. 제조업에서도 디지털 기술로 인한 과격한 변화가 전개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트렌드 중 하나가 언번들링(Unbundling; 분해) 그리고 리번들링(Re-bundling;



재조합)이다. 언번들링과 리번들링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번들(Bundle)'이라는 용어에서 비롯됐는데, 최근 다양한 업종에서 디지털 기술을 받아들이는 변화에 활용되고 있다. 제조업에서의 언번들링, 리번들링이라 함은 하나의 제품 또는 공정, 설비 등 형태가 존재하는 제조업의 모든 구성 요소가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해체되고 재조합 되는 것이다.



언번들링 트렌드는 조선업의 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과거 조선업은 특정한 선박을 '값싸게 제작'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점차 '똑똑한 선박'을 제조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대표적

인 영역이 자율운항 선박이다. 자율운항 선박은 선원의 개입 없이 스스로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박을 의미한다. 다만, 이는 AI, 센서 기술, 데이터 분석 등의 디지털 혁신 기술들이 기존의 조선 영역과 결합된 결과이다. 선박을 구성하는 모든 설비와 장치, 그리고 선박의 항해, 운영, 유지보수에 해당하는 모든 과정이 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 선박의 내부 시스템과 설비를 비롯해 운영, 항해 프로세스 등이 그에 맞게 재설계되거나 수정돼야 하며, 언번들링과 리번들링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설계에서부터 항해 방식, 운영 매뉴얼, 유지보수 등 모든 영역이 해체되고, 재조합 된다.

조선업 디지털 전환의 도전과 기회

결국 조선업은 전통적인 방식의 선박 제작에서 벗어나, 핵심 디지털 솔루션과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기능 정의의 방향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이는 국내 조선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조선사들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조선사가 디지

털 역량을 빠르게 확보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내부 기술과 인재뿐만 아니라, 조직의 DNA조차 그에 맞게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글로벌 조선사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자율운항 선박 분야에서는 북유럽 강소국들이 조선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노르웨이 콩스버그는 선박 자동화와 항해 컨트롤 시스템 분야에서 독보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핀란드 국영해운사 핀페리는 2020년 영국 롤스로이스와 공동 개발한 '팔코(Falco)'호를 통해 세계 최초로 자율운항을 통한 자동이안 및 접안을 성공시킨 바 있다.

북유럽 조선사들이 자율운항 분야에 강점을 보이는 것은 협력을 통한 혁신 역량에 있다. 주변의 역량 있는 IT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조선업의 디지털 혁신을 보다 빠르게, 효과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북유럽 국가의 IT 경쟁력이 뛰어난 정도 한 몫 하겠지만, 조선사들의 열린 혁신 문화와 마인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기 추진 시스템 또한 협력이 강조되는 대표적인 영역 중 하나다. 전통적인 내연기관 선박은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점차 친환경 전기 추진 시스템으로 대체되고 있다. 특히, 전기 선박의 핵심 기술인 배터리와 전기모터는 배터리 제조업체와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IT 기업들과의 협력 생태계 구축은 조선업체들이 전기 선박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전혀 다른 영역의 기술을 조선업에 활용하는 관점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IBM과 같은 IT 기업들은 AI 기반의 예측 유지보수 시스템을 개발해, 자동차 제조 기업, 에너지 기업 등에 적용하고 있다. 이는 조선업에도 적극 활용해 약간의 보완과 변경을 통한다면 선박의 고장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고, 효율적인 유지보수가 더욱 원활해질 것이다.

이처럼 최근 인공지능 기술로 대표되는 디지털 대변혁은 조선업에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기회가 될 것이지만,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추락의 시기가 될 것이다. HD현대의 과감한 도전을 기대한다.

글 김상윤 교수(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여름철 '꿀잠'으로 열대야 극복하기

습하고 더운 날씨에 밤새도록 뒤척이는 어르신들, 잠 못 드는 직장인들, 어린이까지 남녀노소 모두에게 힘겨운 여름밤이다. 여름철 열대야를 깊은 잠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열대야 수면의 특징

우리가 흔히 열대야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더운 날 밤'이 아니라, 여름 밤 최저 기온이 25°C 이상인 현상을 일컫는다. 주로 일 평균 기온이 25°C 이상이면서 일 최고 기온이 30°C 이상인 무더운 여름에 나타나며,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장마가 끝난 뒤에 나타난다. 열대야가 발생해 밤의 기온이 높고 올라가고, 습도도 높아 선풍기나 부채 같은 것으로 더위를 쫓기 어렵게 되면 숙면을 취하기가 쉽지 않다. 밤에 개운하게 잠을 못 자면 낮 생활에 지장이 생길 뿐만 아니라, 피로가 제대로 풀리지 않아 만성피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빛이 줄어들고 체온이 떨어져야 하는데, 여름에는 낮이 길고 기온이 높아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 또한 날이 덥다 보니 늦은 저녁 수박이나 음료, 맥주 등을 섭취해 요의를 느껴 자주 깨기도 하며, 늦은 밤 공포영화 등을 시청하는 것도 지나친 자극으로 잠을 뺏는 요인이 된다.

열대야로 인한 불면증이 계속되면 집중력의 저하, 졸음 등으로 다음 날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줘 업무에 지장을 받거나, 각종 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면에 적절한 온도

온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경우에는 잠을 자기가 어렵다. 이를 위해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당연히 침실의 온도와 습도를 수면에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수면에 적절한 온도

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18~22°C 정도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계절을 구분하지 않은 평균적인 온도이며 여름철에 이 정도의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에어컨을 틀면 너무 추울 수 있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대략 24~26°C를 유지하는 것이 무난하다. 선풍기나 에어컨을 밤 동안 내내 켜놓을 경우 습도가 너무 떨어져서 호흡기 계통을 건조하게 해 상기도 감염(감기)에 취약하게 되므로 더욱 고생을 하기 십상이다.

수면제의 사용은 주의해야

유난히 더위를 못 견뎌 매일 밤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은 종종 피곤하고 힘이 들어, 가장 손쉬운 불면증 해결 방법인 수면제 복용을 고민하게 된다. 짧은 기간 동안의 수면제 사용은 분명 효과적이고 손쉽게 불면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수면제의 장기간 사용은 금단증상 및 의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는다.

비록 앞으로 남용이나 의존의 위험이 전혀 없는 약물들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잘 것 같은 두려움" 등의 심리적 의존은 절대 없애지 못한다.

특히 "내가 약을 먹고라도 잠을 자야 한다"라는 심리적 의존이 약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또 수면제 사용 시 몽유병 및 낙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수면제 사용은 단기간으로 그쳐야 하며, 무엇보다 올바른 수면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숙면에 도움 되는 생활습관 10가지

첫째, 항상 일정한 시간에 기상해 활동함으로써 우리 뇌 속의 생체 시계를 정상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다. 잠을 섰다고 해서 늦잠을 자거나 일찍부터 잠자리에 들어 어제 못한 잠을 보충하려고 하다 보면 불면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도 있다.

둘째, 졸릴 때만 잠을 청하는 것이다. 잠이 오지 않는데 오랜 시간 침대에 누워 어떻게든 자보겠다고 하는 것은 불면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잠이 오지 않고 눈만 말뚱말뚱한 상태가 지속되면 차라리 잠자리에서 나와 킁킁한 마루 같은 곳에 앉아서 잠들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잠이 올 때 잠자리에 들어가도록 한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다. 땀이 촉촉하게 배일 정도로 하는 운동을 하루에 30분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가벼운 수면 장애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기도 하다. 지나치게 격렬하지도 않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이 중요하고, 너무 늦은 저녁에 하는 것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좋지 않다.

넷째, 저녁 시간에 흥분을 피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인데 앞서 이야기한 공포 영화 같은 것은 피하는 것이 좋고, 명상이나 점진적 이완요법 같은 이완 훈련이 도움이 될 것이다. 잠이 안 온다고 해서 늦게까지 TV 등을 시청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시각적인 자극이 뇌로 전달되어 뇌가 각성 상태(잠이 안 오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다섯째, 카페인 함유 음료(커피는 물론 인공도 녹차, 홍차, 콜라, 초콜릿 등도 마찬가지로)는 피해야 한다. 담배, 흥분제 등도 수면에는 방해가 될 뿐이다. 잠이 쉬 오라고 술을 마시는 경우도 좋지 않은데, 실제로 술은 수면 뇌파를 변화시켜 잠이 들긴 들더라도 깊은 잠을 못 자고 자꾸만 깨게 만든다.

여섯째, 과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반대로 너무 배가 고파 잠을 이루기 어려운 경우는 따뜻한 우유 한잔과 같은 가벼운 군것질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수박이나 시원한 음료를 너무 많이 먹어서 밤에 화장실에 다니느라 잠을 깨는 경우는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취침 전에는 긴장을 충분히 풀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한다.

여덟째, 낮잠을 피하고 평소 취침하는 시간 외에는 눕지 않는다.

아홉째, 식사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는 것이 좋고 저녁에는 과식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끝으로 침실 환경을 조용하고 쾌적하게 만들어 편안한 수면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소음, 빛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얇은 소재의 시원한 잠옷을 입고 얇은 이불로 배를 덮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된다.

달게 자는 깊은 잠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약이다. 건강한 수면 습관을 통해 여름철 흐트러지기 쉬운 잠을 잘 잡아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도록 하자.

글 서울아산병원

행복에 이르는 '화해의 기술'

살아가면서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로부터 가슴 아픈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지 않는 부모, 부모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자녀, 아내 혹은 남편을 무시하고 속이는 배우자,

우정이 아닌 배신으로 우리는 아무런 잘못 없이 희생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들은 분노, 억울함, 슬픔과 같은 수많은 부정적 감정과 상처를 남겨 우리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용서의 의미

'용서(容恕)'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다른 사람이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너그럽게 봐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容)은 '포용하다'라는 뜻이며,恕(용서할 서)는 마음 심(心)과 갈을 여(如) 자가 합쳐진 형태로 '마음이 같아진다'라는 뜻으로 이는 가식이 아닌 진심이여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용서를 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마음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내는 것으로, 이런 감정들이 있는 한 진정한 용서는 어렵습니다. 용서와 유사한 화해가 있는데, 용서는 상처받은 주체가 되는 행위이고, 화해는 상처를 입힌 사람이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화해와 용서 모두 새로운 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게 이끌어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수용 단계

1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기

당신의 고통은 어느 누구의 고통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으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내면의 감정을 판단하거나 부인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합니다.

2 복수심 버리기

누군가 고의적으로 당신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받은 고통을 다시 돌려주고 싶은 생각은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복수를 했다고 해도 만족은 순간이며 평화로움을 얻기 힘듭니다. 진정한 만족과 평안은 상처를 되돌려 주었을 때가 아니라 당신이 상처 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수용했을 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3 선택할 수 있는 수용하기

수용은 반드시 화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화해할 수도 있고, 수용은 하지만 화해는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당신이 가장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고 편안하게 수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용서는 수용하는 것

수용은 상처를 입힌 사람이 도움이 되지 않거나 뉘우치지 않았을 때 반응하는 적극적이고 힘찬 방법입니다.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할 필요가 없고, 거짓으로 용서를 하거나 거부하는 것과 달리 고통을 조절하고 상처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버드 의대 정신의학과 교수 주디스 허먼은 저서 'Trauma and Recovery'에서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지만, 그것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상처를 준 상대방에게 보상과 처벌을 요구할 수 있지만, 어떻게 살아남고 상처를 극복할지를 결정할 자유는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 효과는 엄청나서 이 자유를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려고 할 때 당신은 힘을 얻고 고통스러운 과거와 화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하버드 보건대학원 연구팀은 홍콩, 우크라이나, 콜롬비아 등에서 2주간 4천600여명을 대상으로 용서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고, 참여자들에게 '용서 워크북'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용서 워크북이란, 내면의 분노와 억울함 등의 감정을 살펴보고 감정을 흘러 보내는 훈련을 하는 일지인데, 작성 결과 용서 워크북을 실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감, 불안감이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과거를 회상하는 빈도가 이전보다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1995년 자신의 어머니가 강도에게 살해당한 후 살인자를 용서하는 문제를 놓고 오랜 기간 연구 끝에 용서의 기술 5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용서의 기술(REACH)”

첫 번째 상기하기(Recall the heart) 상처를 부인하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두 번째 공감하기(Empathize) 나에게 상처를 가한 사람과 입장 바꿔 생각해 보기

세 번째 이타심 갖기(Altruistic) 상대를 축복하고 자신 안의 자유를 갖기

네 번째 약속하기(Commit) 상대를 용서하기로 나 자신과 약속하기

다섯 번째 견디기(Hold on) 용서하는 마음 유지하기

상처와 분노는 나의 삶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용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글 유송희 실장(HD현대삼호 마음정원)

한국잡월드에 'HD현대'가 떴다!

"아빠, 엄마가 다니는 회사는 뭐 하는 곳이야?"

우리가 몸담고 있는 HD현대를 자녀들에게 소개한다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청소년들이 개개인의 재능을 찾아 진로와 미래를 설계하는 곳, 한국잡월드!

HD현대는 최근 이곳에 직업체험관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미래인재 육성에 나섰다.

HD현대 잡월드 내 3개 체험관 오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한국잡월드는 2012년 5월 개관 이후 지난 12년간 전국에서 누적 770만 명이 넘는 이용객이 찾았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메인 체험관은 만4세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이용 가능한 '어린이체험관'과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체험관' 두 곳으로, 수많은 학교에서 단체 체험 학습을 위해 방문한다. 또한 아이들의 적성과 흥미를 알아보고 맞춤형 진로를 탐색하는 '진로설계관', 직접 작품을 만드는 '메카이브', 첨단기초-전통속련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속련기술체험관'까지 총 5개 체험 테마로 구성돼 있다.

HD현대는 최근 이곳에 '친환경 선박-에너지스마트 건설' 산업을 주제로 한 3가지 직업체험관을 구축했다.

친환경을 테마로 한 청소년체험관

한국잡월드 3층에 위치한 청소년체험관 입구로 들어서서 안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2층으로 구성된 HD현대 체험관을 만나볼 수 있다. 1층에는 HD한국조선해양 '친환경선박연구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2층에는 HD현대오일뱅크에서 구축한 '그린에너지스테이션'이 자리하고 있다.

친환경선박연구소는 학생들이 직접 조선공학기술자, 친환경선박개발자가 돼 친환경 선박을 제작하는 곳이다. 선주로부터 선박 제작을 의뢰하는 편지를 받는 것으로 시작해 주어진 60분 동안 설계, 건조, 시운전, 명명식 등 최첨단 친환경 선박의 제조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주어진 미션에 따라 선박에 필요한 부품들을 학생들이 직접 선정하고, 선박을 직접 조립하고 탑재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후 골리앗 크레인 모형을 이용해 선박



을 옮기며, 실제 진수를 하는 모습을 2D 이미지로 구현해 도크에 물이 차오르는 모습, 접안된 선박이 시운전을 나가는 모습 등을 웅장하게 구현해냈다.

2층에 위치한 그린에너지스테이션에서는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연료와 제품을 친환경 연료와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바꾸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소 어렵게 느껴졌던 정유, 석유화학사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6명이 1개조를 결성해 각 구성원들은 화학공학기술자, 에너지공학기술자, 신재생에너지개발자가 된다. 60분 동안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고 도시에 적용하면, 점차 화석빛의 오염된 가상도시가 깨끗한 도시로 변화해 간다.

오늘은 내가 굴착기 조종사

HD현대사이트솔루션이 구축에 참여한 '스마트건설사이트'는 한국잡월드 3층 어린이체험관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보인다. 체험관 내외부 모습은 어린이들이 생소하게 느낄 건설기계 장비들을 쉽고 재미있게 다가가갈 수 있도록 신경 쓴 흔적이 돋보인다. 청소년체험관과 달리 체험은 25분 동안 진행되며, 건설기계의 역할과 주요 명칭·작동법을 익히는 동시에 첨단 미래 기술까지 학습할 수 있다.

아이들은 굴착기에 탑승 후 첫 번째 미션인 웅덩이를 메우는 작업을 하다가, 신사태가 발생하면 원격 조종 콘솔로 전환해 긴

급 복구 작업에 투입되는 등 흥미진진한 체험에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된다. 특히 자율주행 지게차는 태블릿으로 조종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기능과 첨단 센서 기술을 게임처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해 아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HD현대는 지난해 한국잡월드 야외 공간에 '놀품 놀이터'와 어린이 텃밭인 '내로와 미로의 정원' 조성을 지원한 바 있다. 예약제로 운영되는 어린이 텃밭 정원은 매달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오시는 길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501
 이용시간 월~토(09:00~18:30) 2부제로 운영
 체험예약 <https://www.koreajobworld.or.kr/>
 문의 ☎ 1644-1333

Zoom in 잡월드



HD한국조선해양
친환경선박연구소



HD현대오일뱅크
그린에너지스테이션



HD현대사이트솔루션
스마트건설사이트

서산에서 꽃지까지 서해안 따라 힐링 여행을 떠나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누구나 진정한 휴식을 얻을 수 있는 여행을 늘 꿈꾸고 있다.
몸과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여행을 떠날 때 얼마나 설레고 행복한가.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풍경 속에서 힐링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서해안에도 있다.
서산에서 꽃지까지 서해안을 따라 숨어 있는 아름다운 풍경과 예술과 역사의 공간을 찾아 떠나보자.
고즈넉한 풍경 앞에 번잡한 마음을 내려놓고 잠시 쉬어가는 여행이야말로 더욱 힘차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간월도의 간월암



- ① 간월도
- ② 서산 해미읍성
- ③ 아미미술관
- ④ 운여해변
- ⑤ 꽃지해수욕장

신비로운 풍경에 위로 받다, 간월도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간월도는 원래 섬이었다.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에 위치한 간월도는 1980년대 말 천수만 간척 사업으로 인해 현재는 육지와 연결됐다. 육지와 이어져 있던 간월도는 만조 때가 되면 다시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섬이 된다. 만조와 간조 사이 해수면의 높낮이에 따라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이 계속 달라지는 묘한 곳이다.

간월도에는 조선 초 처음 건설돼 현재까지도 고고한 학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암자가 있다. 조선 초기 무학대사가 달을 보고 지었다고 해서 '간월암'이라고 불리는 암자다. 무학대사는 이성계를 도와 조선 건국에 기여한 인물로 유명하다. 바로 이 간월암이 간월도 풍경의 화룡점정이다. 특히 만조 시에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풍경이 한 폭의 수묵 동양화 같다. 멀리서 바라보는 풍경은 마음에 평온함으로 다가오고 가까이 다가가서 바라보면 오랜 세월의 정취가 느껴진다. 썰물이 되면 걸어서 들어갈 수 있고, 만조 시에는 작은 뗏목을 타고 간월암으로 들어

▼ 간월암 내부 모습





갈 수 있다. 암자 마당에서 서서 서해 바다 수평선을 바라보면 고요한 평온함을 느낄 수 있다. 복잡한 도시인들에게는 그 단순한 수평선마저 힐링으로 다가온다.

간월도 여행은 간월도의 특산품인 굴과 여러굴젓을 빼놓을 수 없다. 어부들이 직접 채취한 굴을 이용해 만든 굴밥을 맛보고 여러굴젓은 기념품으로 구매할 수도 있다. 밥을 먹고 산책을 하기에 가장 좋은 최신 핫플레이스는 여행자들을 위해 새롭게 건설된 간월도 스카이 워크다. 길이 113m, 높이 6m 가량의 보행자용 곡선의 교각이다. 스카이 워크에 서서 바라보는 서해바다와 간월도의 풍경도 좋고, 등대가 있는 방파제에서 바라보는 간월암의 풍경도 아름답다. 발길 닿는 대로 여유롭게 산책하기 좋은 간월도에서 진정한 마음의 쉼을 누리 본다.

역사의 향기 속 현재를 돌아보다, 해미읍성

충남 서산 해미면에 소재한 해미읍성은 조선 전기 세종 때 군사적인 목적으로 돌로 쌓은 읍성이다. 효종 때 병영을 청주로 옮기면서 일반적인 읍성으로 기능을 하게 됐다. 오랜 역사의 이동 속에서도 크게 훼손되거나 파괴되지 않고 잘 보존돼서 지방 읍성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료로서의 가치를 뛰어난 곳이다. 성벽의 총길이는 1.8km, 높이는 5m로 평지에 타원형으로 건설됐다. 이순신은 1576년 무과에 급제하고 1579년(선조 12년)에 충청병마절도사의 군관으로 해미읍성에서 10개월간 근무했다고 한다. 또한 이곳은 조선 말기 천주교 박해 당시 1천여 명 이상의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를 당한 천주교의 성지이기도 하다.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도 1791년 신해 박해 때 해미읍으로 유배를 왔다.

생생하게 살아 있는 역사적인 공간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

보고, 그 공간을 걸을 수 있다는 건 특별한 체험이다. 여행이 좋은 이유는 일상을 벗어나서 낯선 공간을 여행하면서 과거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다. 해미읍성의 성벽 길을 걷고 읍성 안 옛 건축물 사이를 거닐면서 잠시나마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 본다.

예술의 향기에 취하다, 아미미술관

간월도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아미미술관은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작은 미술관이다. 폐교된 옛 초등학교를 그대로 활용해서 조성한 시립미술관으로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개방하는 생태미술관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전통의 유산과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현재의 시대에 지역의 건축, 문화, 생활상을 파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재생하는 미술관을 지향하고 있는 작지만 아름다운 미술관이다. 폐교의 교실이 전시 공간이 되고 교실의 창문이 마치 액자처럼 자연의 색채를 담아낸다.

교실 밖 복도는 예술적 장식으로 새로운 느낌의 공간으로 다가온다. 교실 주변 야외에 조성된 꽃과 나무는 작은 정원처럼 가



볍게 걷기에 좋다. 어린 시절에는 넓게만 느껴졌던 운동장은 잔디로 덮여 있어서 아늑하고 포근하게 다가온다. 운동장 옆 화사한 색채와 소품으로 꾸며진 카페는 마치 프랑스의 소도시에 온 것 같은 운치가 느껴진다. 이국적인 카페에서 차 한 잔 맛보면서 잠시나마 예술적 감흥에 취하기에 좋은 곳이다.

숨겨진 서해 비경에서 마음의 평온을 얻다, 운여해변

77번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안면도를 달리다 보면 태안군 고남면 장삼포로의 서해안에 꼭꼭 숨어 있는 비경인 '운여해변'이 있다. '운여'라는 지명은 시적이다. '바위에 부딪히는 높은 파도가 만들어내는 포말이 장대하여 마치 구름과 같다'하여 구름운(雲), '떨을 때는 바닷물 위에 드러나고 밀물 때는 바다에 잠기는 바위'인 돌이름 여(礫)를 합친 말이다. 안면도의 셋별해수욕장과 장삼포해수욕장 사이 숲속에 위치한 운여해변은 자연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풍경이 특히 아름다운 곳이다.

운여해변 남쪽에는 소나무를 밀렬로 심어 놓은 방파제가 있다. 이 방파제가 거친 파도로 인해 한쪽 끝이 끊겼고, 밀물 때가 되면 바닷물이 소나무 방파제 안쪽으로 호수처럼 가득차서 소나무 숲과 바닷물이 어울려 환상적인 그림을 만들어낸다. 특히 낙조가 아름다워서 일몰 명소로도 인기가 있으며, 캠핑 애호가들에게는 캠핑의 명소로 유명해지고 있다. 깊은 밤이면 은하수를 감상할 수 있는 것도 이곳이 주목받는 이유다.

북게 저무는 일몰 속 새로운 희망을 꿈꾸다, 꽃지해변

충남 태안군 안면읍 광지길에 자리한 꽃지해변은 5km에 이르는 광대한 백사장이 가슴을 탁 트이게 해준다. 예로부터 백사장을 따라 해당화가 지천으로 피어나서 '꽃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고 한다. 기나긴 백사장을 따라 가족끼리 또 연인끼리 산책하기 좋으며, 가만히 앉아 밀려오는 파도와 먼 수평선을 감상하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다.

꽃지해변의 랜드마크와도 같은 할배바위와 할매바위는 그 너머로 지는 석양과 어울려서 최고의 장관을 연출한다. 이 두 바위에는 슬픈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안면도에 기지를 두었고, 기지사령관 승언은 출정을 나가서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 미도는 죽어서 할배바위가 되고, 조금 더 바다 쪽에 마주선 큰 바위는 승언을 상



징하는 할배바위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곳은 낙조가 아름답기로 명성이 자자해서 전국 곳곳의 수많은 사진가들이 해질녘이 되면 몰려온다. 붉디붉은 낙조 아래 넓은 백사장과 부드러운 파도와 두 바위가 어울린 풍경이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 같다.

서산에서 당진을 거쳐 안면도까지 떠나는 서해안 여행은 고단한 현대인들에게 힐링이 되어줄 것이다. 고즈넉한 해안 풍경과 평온한 자연이 선사하는 느낌의 미덕은 제대로 된 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다. 또, 흥미로운 역사와 전설, 예술적 향기가 함께 어우러져 여행의 가치를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올 여름 HND현대 사유 여려분도 서해안을 따라 여유로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

글&사진 여행작가 백상현



눈 떠보니 신입사원

Ep.0 신입사원 인증현

HD현대 핵심가치를 이야기로 풀어내다!

2034년, HD현대중공업 인증현 사장은 휴양지에서 모처럼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다 잠에 들었는데, 그 사이 2004년으로 회귀한다. 눈 떠보니 신입사원 인증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총 4번의 미션을 해결해야 한다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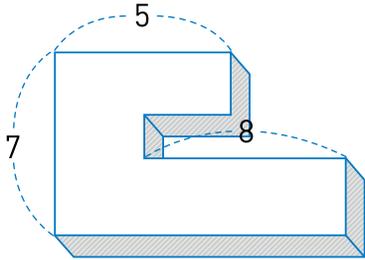


상식 QUIZ

- 01 우리나라 국보 1호는?
- 02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라는 뜻의 사자성어는?
- 03 2024년 최저시급은?

사고력 QUIZ

아래의 도형 둘레의 총 길이를 구하세요
(모든 각은 직각입니다)



퀴즈 응도 방법

퀴즈의 정답을 8월 30일(금)까지 QR코드(또는 허단 링크) 접속 후 작성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https://forms.gle/PeYIXaKp9B2nocje6>)

※ 회사명, 부서, 이름 필수 입력!

당첨된 사우에게 상품 수령 관련 안내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나의 2024 SUMMER 휴가 일지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장소에서 나만의 추억을 만들어 보자!
사보 구독자 여러분들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사진으로 담고, 그 속에 담긴 재미있는 사연을 보내주세요.

휴가 일지 응도



우측 QR코드(또는 아래 링크를 통해) 응도 페이지에 접속한다.
휴가 기간 찍은 사진과 해당 사진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2~3문장의
내용과 함께 보내주세요! (<https://naver.me/x5GjGFXL>)

응도 기간 2024년 7월 17일(수) ~ 8월 30일(금)

상 품 투썸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 케이크

“사보에 제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 신설 조직 또는 생소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우들의 이야기
- 동료들과 함께 참가한 단합대회, 단체 여행 등 일상 속 이야기
-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마주한 따뜻한 사연 또는 미담
- 사연 보내는 곳 : yey6507@hd.com
- ※ 사연이 선정돼 사보에 게재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합니다